

인구 성장과 인구 분포

인구는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을 집약적으로 반영한다. 인구 총조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외국인 포함)는 1949년 약 2,020만 명에서 (2010년 추계: 4,941만 명), (2010년 총조사: 4,799만 명-내국인, 59만 명-외국인)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인구 밀도는 2010년 현재 486명/km로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의 분포를 행정 구역에 따라 구분하면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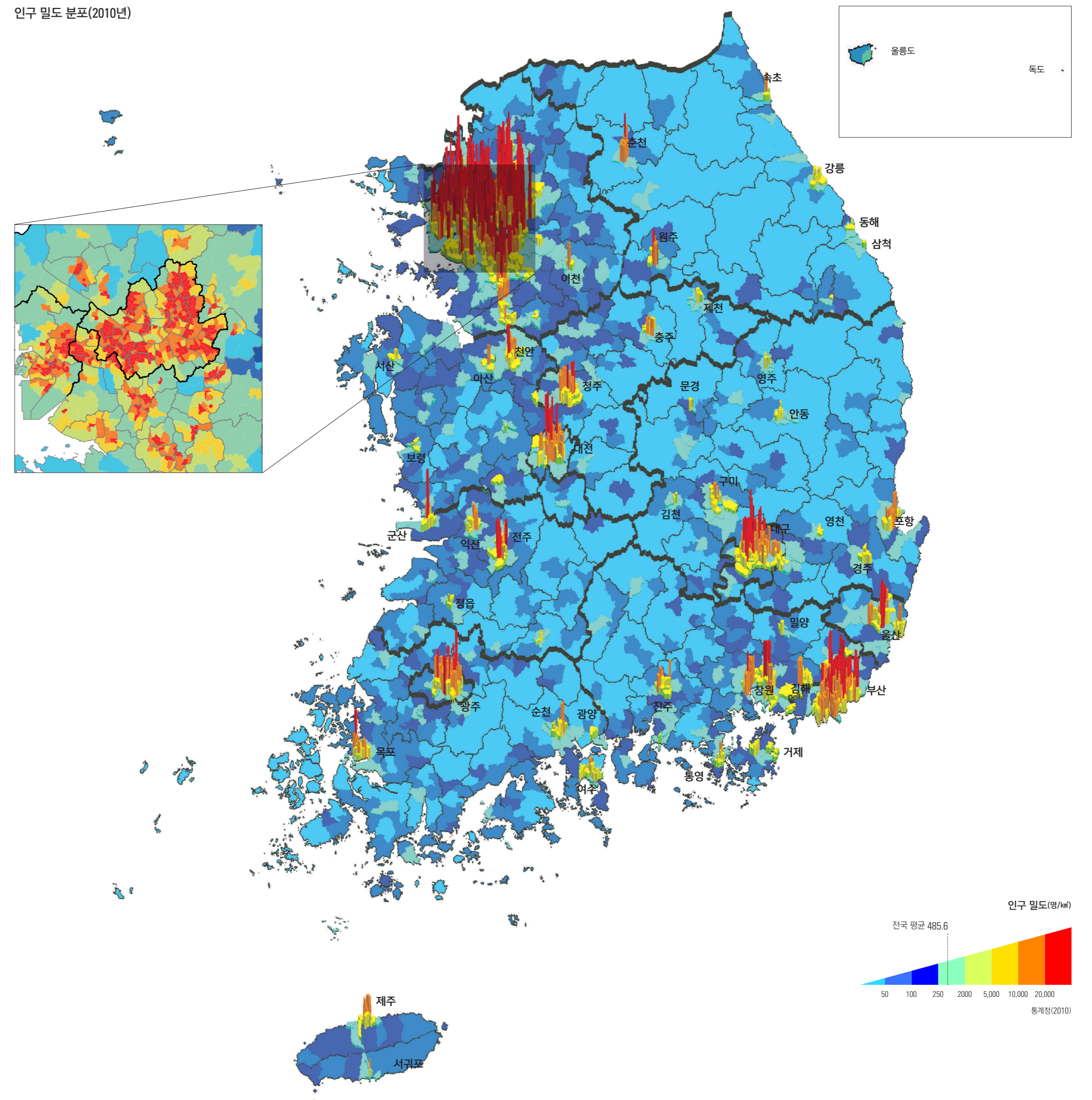
년에는 먼부에 사는 인구가 전체의 73%인 약 1,480만 명에 달했으나 2010년 현재 먼부 인구는 전체 인구의 9%인 약 46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1949년 동부에 사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인 약 350만 명에서 2010년 현재 전체 인구의 82%인 약 3,980만 명으로 증가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역별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1949년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1%인 약 420만 명이었으나

2010년 현재는 전체 인구의 49%에 달하는 약 2,380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해당 권역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호남권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대 인구까지 감소하여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9년에서 2010년까지 전국의 인구는 약 2,840만 명 증가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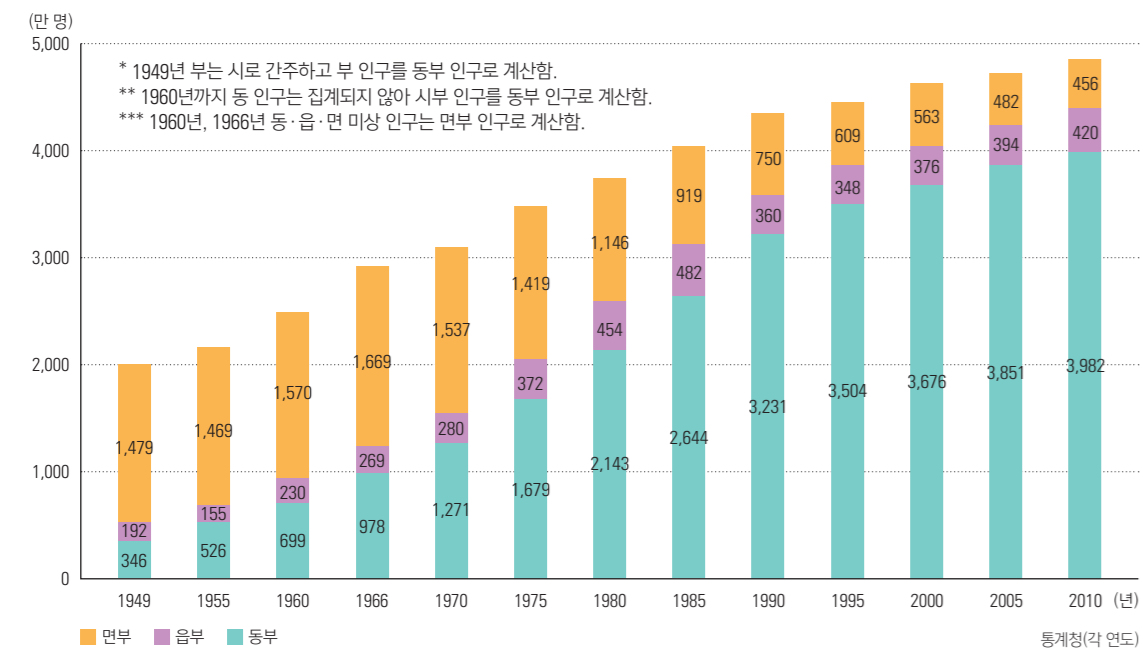
는데, 수도권이 약 1,970만 명, 영남권이 약 640만 명 증가하여 두 지역 인구 증가분이 우리나라 인구 증가분의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본, 기술, 인력이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집중되었고 두 지역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음을 반증한다.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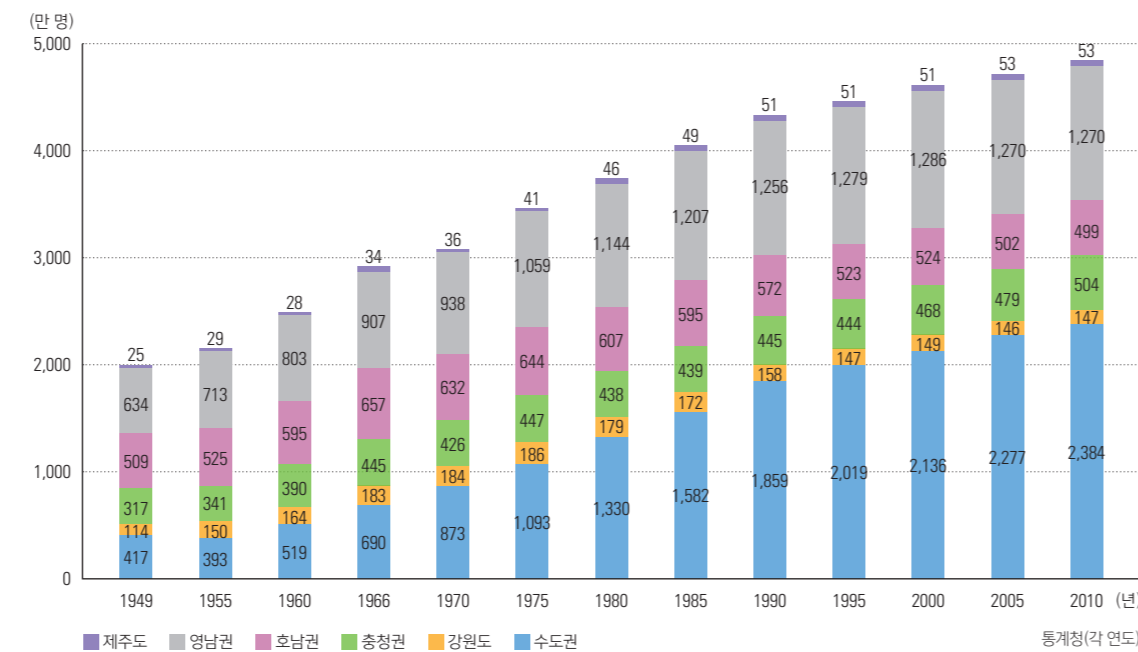
인구 밀도 분포(2010년)



동·읍·면 인구



권역별 인구



우리나라의 인구는 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인구 밀도가 10,000명/km 이상인 곳이 대도시에 많고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부산, 대구, 광주 등의 광역시와 지방의 중소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다. 한편 태백산지, 중부 내륙 및 소백산지를 비롯한 산간 지방과 지방의 군 지역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는 집계 방식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 추계 인구, 인구 총조사 인수로 나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 인구는 셋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하지만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국의 체류자, 군인, 타 지역 거주자 등)가 많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인구 총조사의 경우 5년 단위로 시행되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점의 인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매년 추계 인구를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인구 총조사에 모든 인구가 응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많고 추계 인구, 인구 총조사 인구 순으로 인구 규모가 줄어든다.

주민등록 인구, 추계 인구, 인구 총조사 인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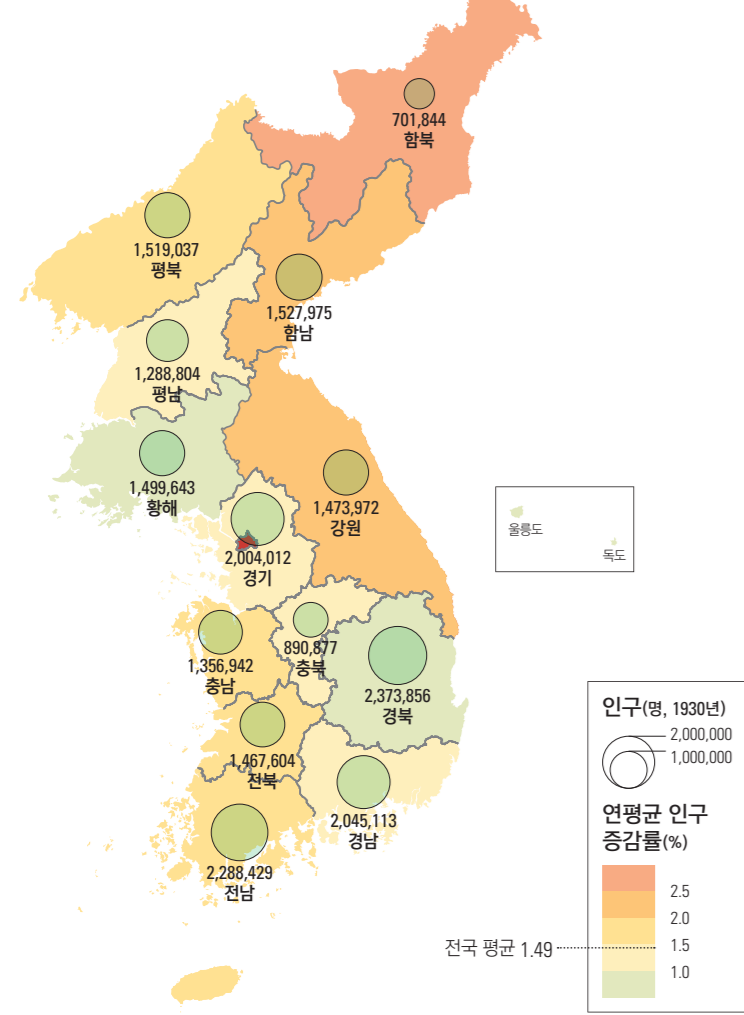
연도	주민등록 인구*		추계 인구**		인구 총조사		주민등록 인가와 인구 총조사 인구의 내국인 차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외국인	
1970	-	-	32,240,827	30,851,984	30,402	-	30,882,386
1975	-	-	35,280,725	34,678,972	27,648	-	34,706,620
1980	-	-	38,123,775	37,406,815	29,500	-	37,436,315
1985	-	-	40,805,744	40,419,652	28,834	-	40,448,486
1990	-	-	42,869,283	43,390,374	20,525	-	43,410,899
1995	45,858,029	-	45,082,991	44,553,710	55,016	-	44,608,726
2000	47,732,558	-	47,008,111	45,985,289	150,812	-	46,136,101
2005	48,782,274	-	48,138,077	47,041,434	237,517	-	47,278,951
2010	50,515,666	-	49,410,366	47,990,761	589,532	-	48,580,293
2014	51,327,916	-	50,423,955	-	-	-	-

* 주민등록 인구: 행정자치부 연말 기준, 외국인 제외
** 추계 인구: 통계청, 2010년까지는 확정 인구, 2014년 인구는 추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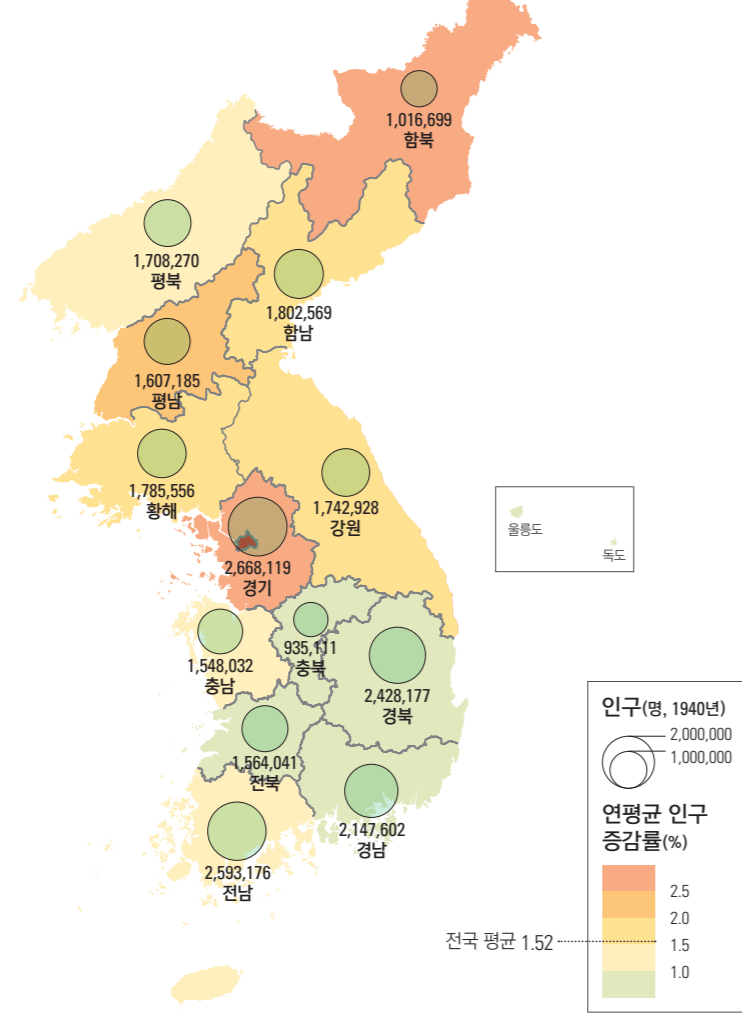
인구 성장

시·도별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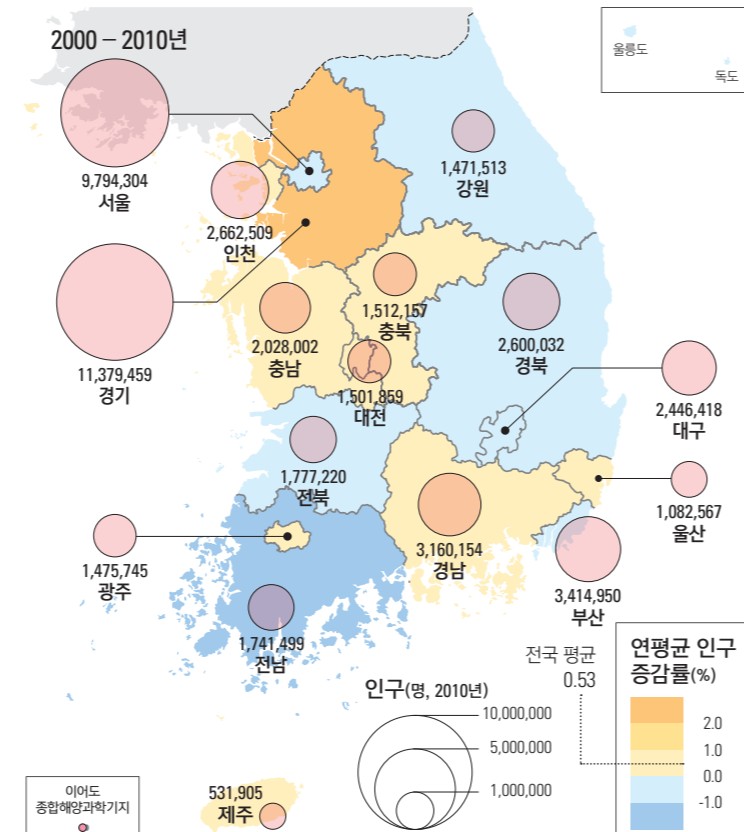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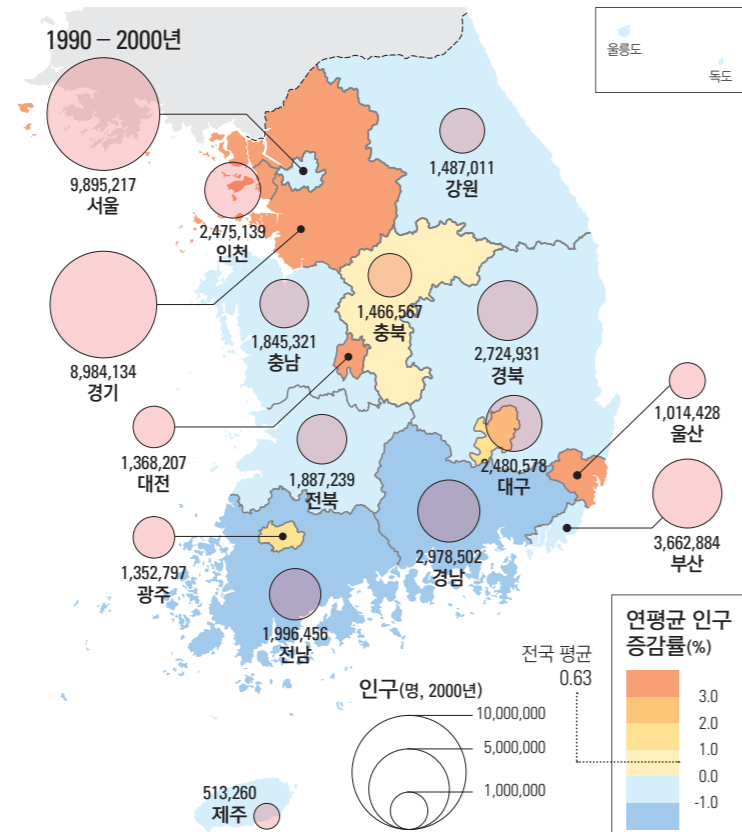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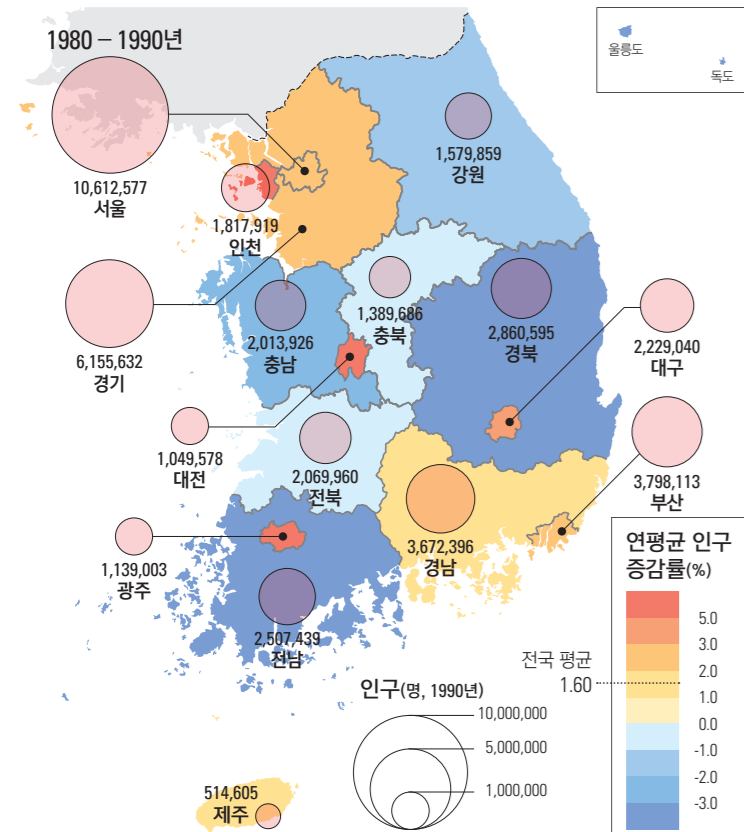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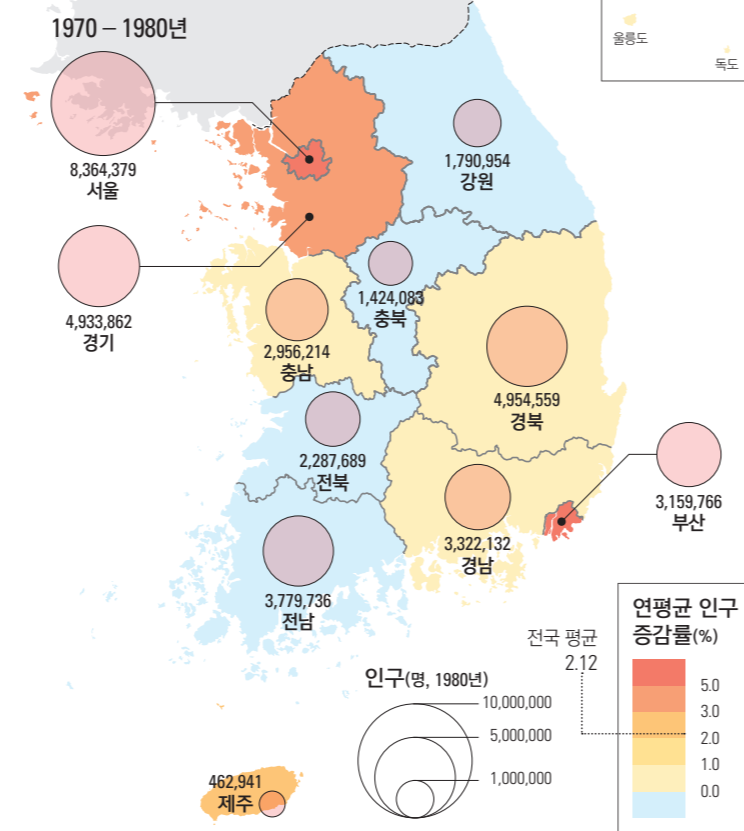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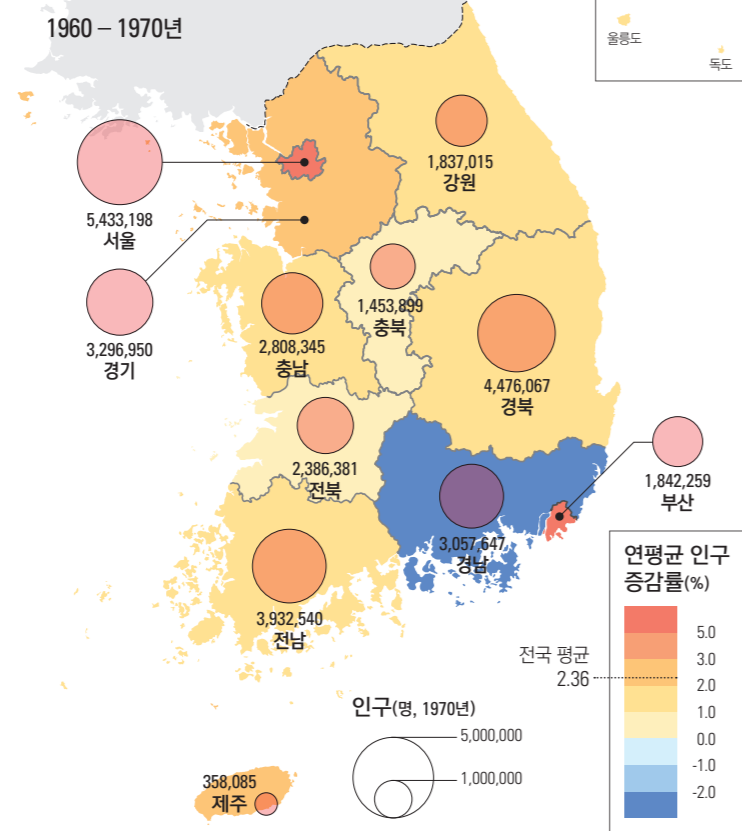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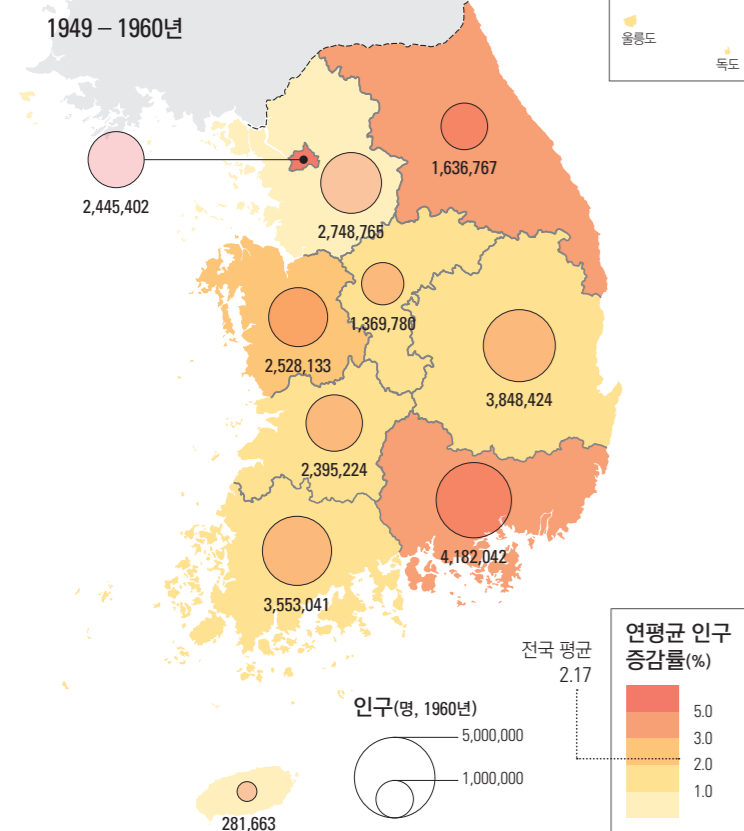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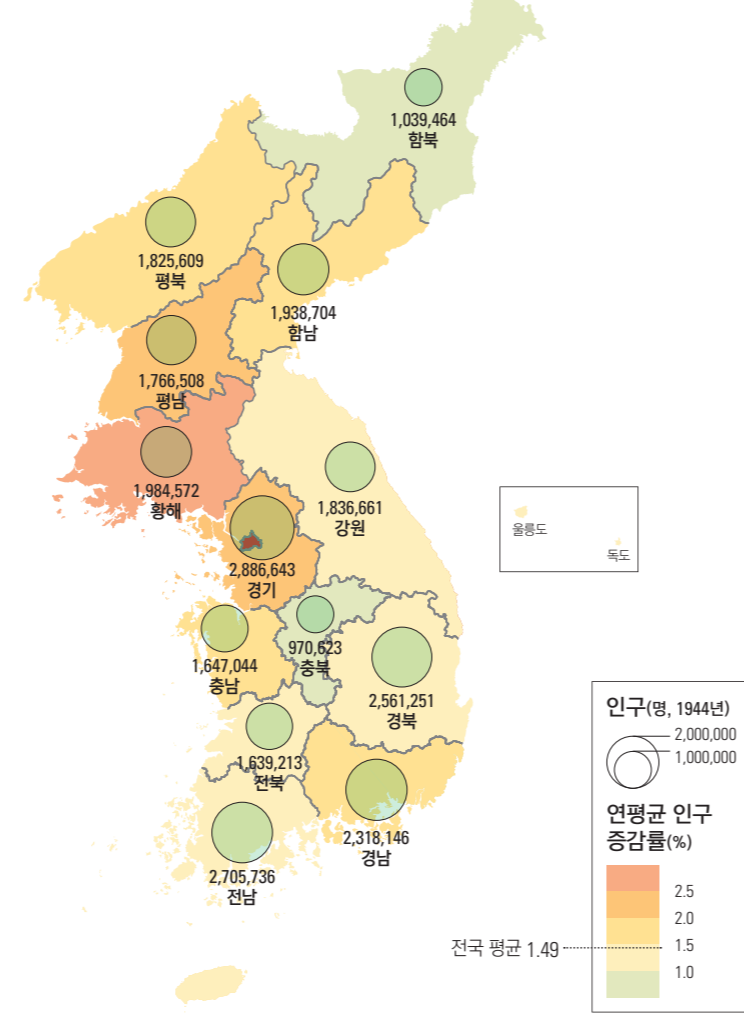
1925 - 1930년



1930 - 1940년



1940 - 19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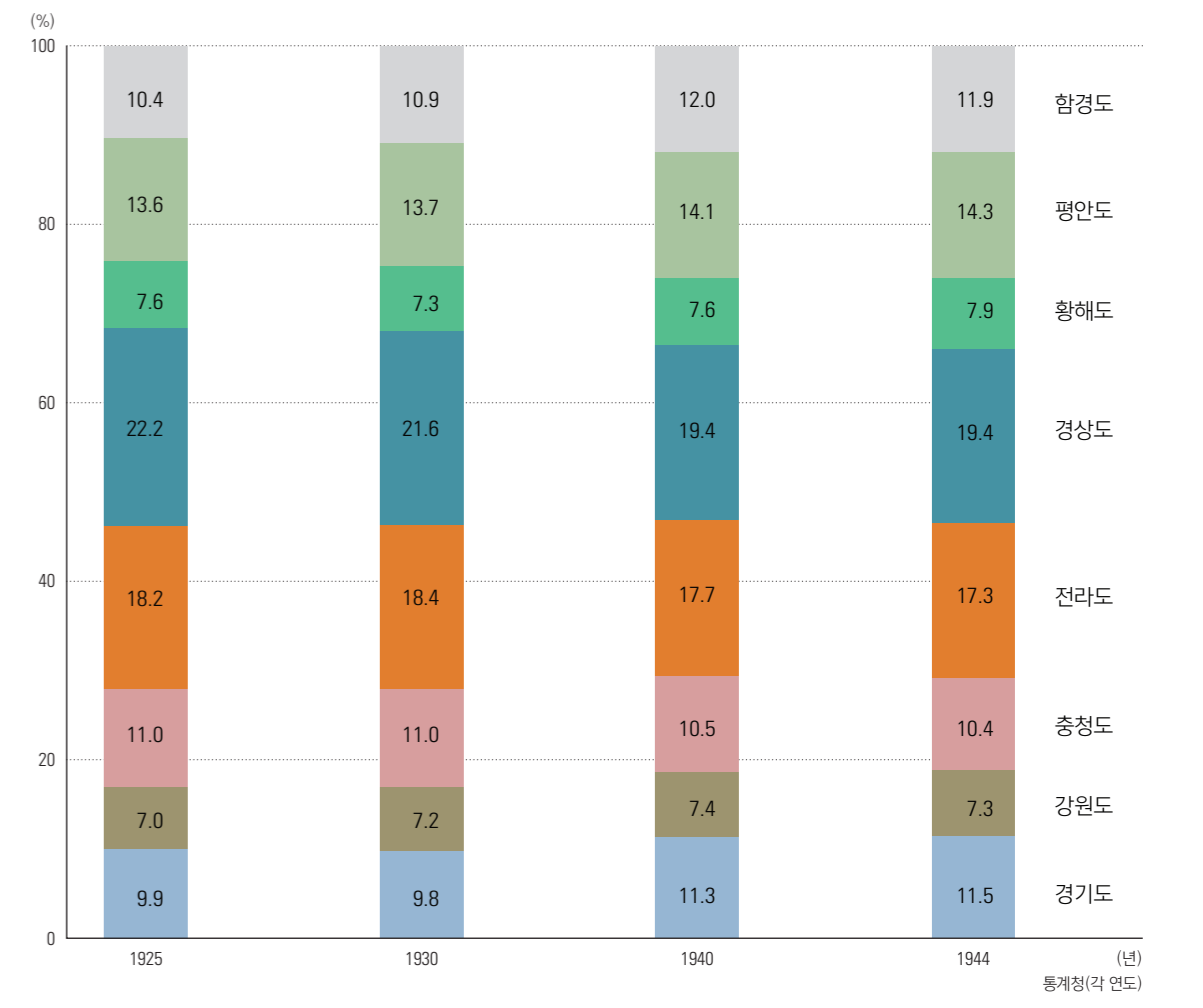
* 인구 증감률을 나타낸 지도의 행정 구역은 뒷년도 기준임(예: 울산광역시의 1990~2000년 인구 증감률은 1990년 울산시의 2000년 울산광역시를 비교함). 2000년 행정 구역에 표시함.

근대적 의미의 인구 총조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25년 10월 1일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5년 단위로 인구 총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44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다. 1925년부터 1944년까지 19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1,900만 명에서 약 2,500만 명으로 600만 명 정도 증가하였다. 권역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특히 함경도와 평안도

광복 전 권역별 인구

구분	1925년	1930년	1940년	1944년	인구 증가(1925~1944년)	
					증가 인구	인구 증가율
전국	19,020,030	20,438,108	23,547,465	25,120,174	6,100,144	32.1
경기도	1,889,899	2,004,012	2,668,119	2,886,643	996,744	52.7
강원도	1,322,331	1,473,972	1,742,928	1,836,661	514,330	38.9
충청도	2,098,446	2,247,819	2,483,143	2,617,667	519,221	24.7
전라도	3,463,969	3,756,033	4,157,217	4,344,949	880,980	25.4
경상도	4,231,286	4,418,969	4,575,779	4,879,397	648,111	15.3
황해도	1,442,943	1,499,643	1,785,556	1,984,572	541,629	37.5
평안도	2,592,646	2,807,841	3,315,455	3,592,177	999,471	38.6
함경도	1,978,510	2,229,819	2,819,268	2,978,168	999,658	50.5

광복 전 권역별 인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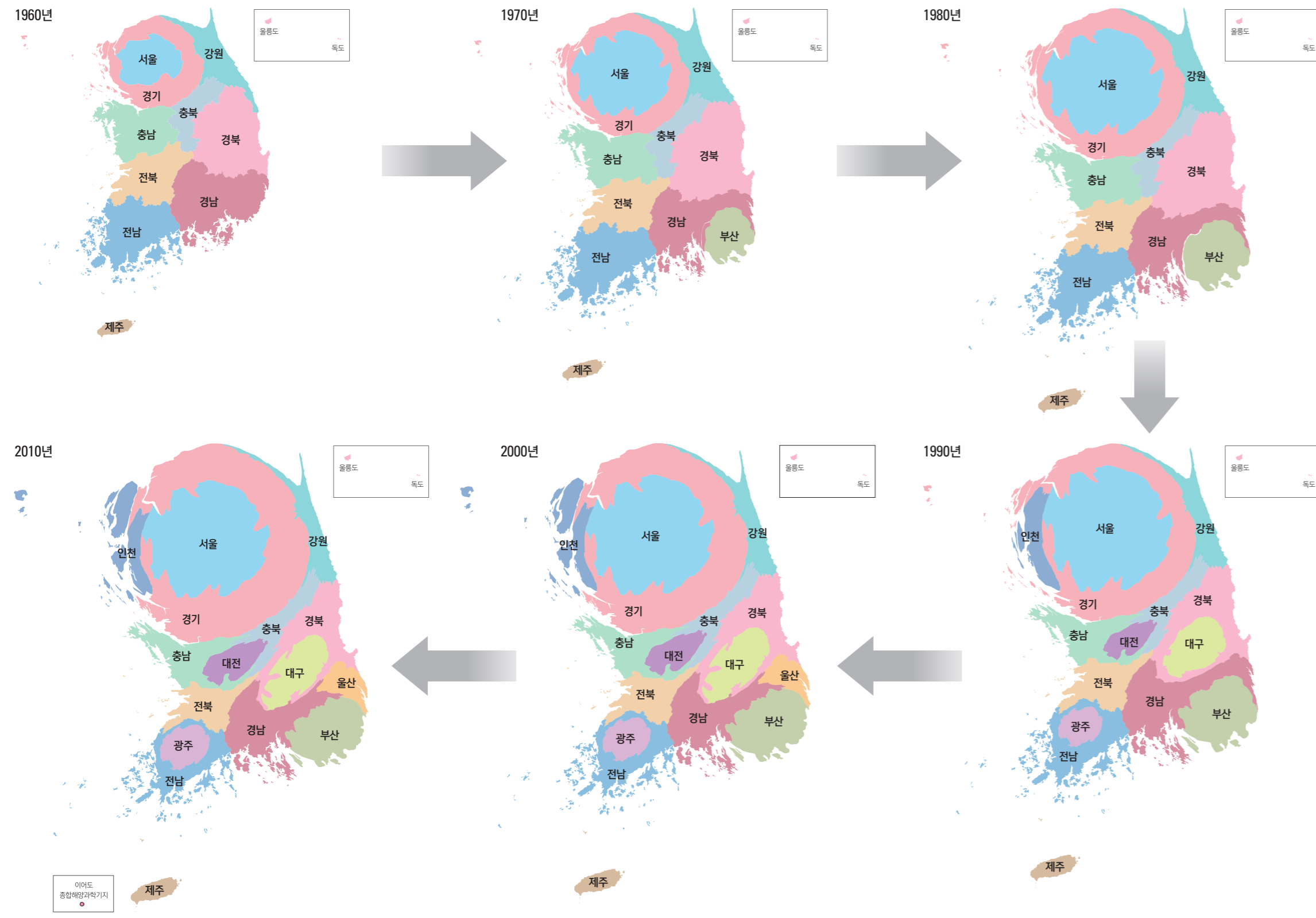


광복 후 인구 총조사는 1949년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거의 5년 간격으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949, 1955,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년). 권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1960년에는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인구가 많았으나, 1970년에는 영남권, 수도권 등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영남권을 초과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었고, 1990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40%를 상회하였다. 2010년 현재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49%에 달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인구는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수도권 중 경기도 인구가 서울의 인구에 근접하게 되었다. 1985

광복 후 권역별 인구

행정 구역	1949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50년간 (1960~2010) 인구 증감		30년간 (1980~2010) 인구 증감		10년간 (2000~2010) 인구 증감		
	인구(명)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	인구 증감률(%)	인구 증감	인구 증감률(%)	
전국	20,166,756	100.0	24,989,241	100.0	30,882,386	100.0	37,436,315	100.0	43,410,899	100.0	46,136,101	100.0	48,580,293	100.0	23,591,052	117.4	11,143,978	23.4	2,444,192	5.1	
수도권	4,171,614	20.7	5,194,167	20.8	8,730,148	28.3	13,298,241	35.5	18,586,128	42.8	21,354,490	46.3	23,836,272	49.1	18,642,105	145.3	10,538,031	56.5	2,481,782	23.5	
서울	1,437,670	7.1	2,445,402	9.8	5,433,198	17.6	8,364,379	22.3	10,612,577	24.4	9,895,217	21.4	9,794,304	20.2	7,348,902	51.8	1,429,925	19.1	-100,913	-1.3	
경기	2,733,944	13.6	2,748,765	11.0	3,296,950	10.7	4,933,862	13.2	6,155,632	14.2	8,984,134	19.5	11,379,459	23.4	8,630,694	60.3	6,445,597	74.7	2,395,325	28.1	
인천	-	-	-	-	-	-	-	-	1,817,919	4.2	2,475,139	5.4	2,662,509	5.5	-	-	-	-	-	-	187,370
강원도	1,138,435	5.6	1,636,767	6.5	1,837,015	5.9	1,790,954	4.8	1,580,430	3.6	1,487,011	3.2	1,471,513	3.0	-165,254	-14.5	-319,441	-21.6	-15,498	-1.1	
충청권	3,172,801	15.7	3,897,913	15.6	4,262,244	13.8	4,380,297	11.7	4,453,190	10.3	4,680,095	10.1	5,042,018	10.4	1,144,105	36.1	661,721	20.2	361,923	11.3	
충북	1,145,964	5.7	1,369,780	5.5	1,453,899	4.7	1,424,083	3.8	1,389,686	3.2	1,466,567	3.2	1,512,157	3.1	142,377	10.3	88,074	6.3	45,590	3.4	
충남	2,026,837	10.1	2,528,133	10.1	2,808,345	9.1	2,956,214	7.9	3,063,504	7.0	3,213,528	7.4	3,169,528	7.3	1,175,671	58.0	776,647	34.5	309,333	13.4	
대전	-	-	-	-	-	-	-	-	1,049,578	2.4	1,368,207	3.0	1,501,859	3.1	-	-	-	-	-	-	133,652
호남권	5,090,442	25.2	5,948,265	23.8	6,318,921	20.5	6,067,425	16.2	5,716,402	13.2	5,239,922	11.4	4,994,464	10.3	-953,801	-18.8	-1,072,961	-21.4	-245,458	-4.9	
전북	2,048,951	10.2	2,395,224	9.6	2,386,381	7.7	2,287,689	6.1	2,069,960	4.8	1,890,669	4.1	1,777,220	3.7	-618,004	-30.6	-510,469	-25.1	-113,540	-5.6	
전남	3,041,491	15.1	3,553,041	14.2	3,932,540	12.7	3,779,736	10.1	2,507,439	5.8	1,996,456	4.3	1,741,499	3.6	-1,811,542	-45.6	-2,038,237	-50.8	-254,957	-6.4	
광주	-	-	-	-	-	-	-	-	1,139,003	2.6	1,352,797	2.9	1,475,745	3.0	-	-	-	-	-	-	122,948
영남권	6,338,937	31.4	8,030,466	32.1	9,375,973	30.4	11,436,457	30.5	12,560,144	28.9	12,861,323	27.9	12,704,121	26.2	4,673,655	73.9	1,267,664	19.8	-157,202	-2.4	
경북	3,205,240	15.9	3,848,424	15.4	4,476,067	14.5	4,954,559	13.2	2,860,595	6.6	2,724,931	5.9	2,600,032	5.4	-1,248,392	-38.7	-2,354,527	-71.4	-124,899	-3.7	
대구	-	-	-	-	-	-	-	-	2,229,040	5.1	2,480,578	5.4	2,446,418	5.0	-	-	-	-	-	-	-34,160
경남	3,133,697	15.5	4,182,042	16.7	3,057,647	9.9	3,322,132	8.9	3,672,396	8.5	2,978,502	6.5	3,160,154	6.5	-1,021,888	-32.9	-161,978	-5.1	181,652	5.8	
부산	-	-	-	-	-	-	-	-	3,798,113	8.7	3,662,884	7.9	3,414,950	7.0	-	-	-	-	-	-	255,184
울산	-	-	-	-	-	-	-	-	1,014,428	2.2	1,082,567	2.2	1,082,567	2.2	-	-	-	-	-	-	68,139
제주도	254,527	1.3	281,663	1.1	358,085	1.2	462,941	1.2	514,605	1.2	513,260	1.1	531,905	1.1	250,242	98.3	68,964	13.4	18,645	3.6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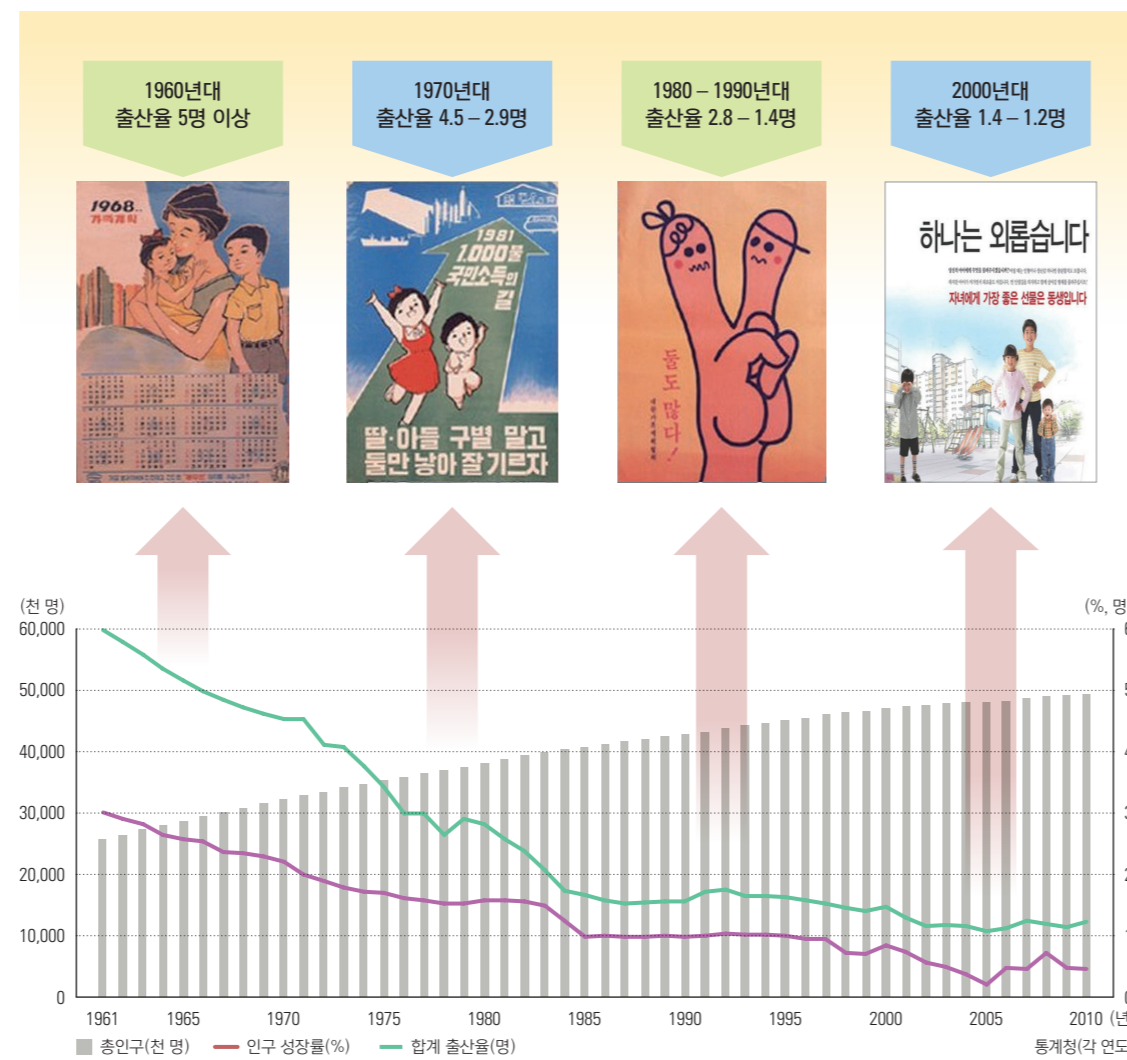
연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전국 인구(명)	24,989,241	30,882,386	37,436,315	43,410,899	46,136,101	48,580,293
지도 상대적 크기(% 1960년 기준)	100	111.2	122.4	131.8	135.9	139.4

*1960년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 구역의 크기를 인구에 비례하여 나타낸 지도로, 인구에 따른 지도의 상대적 크기는 오른쪽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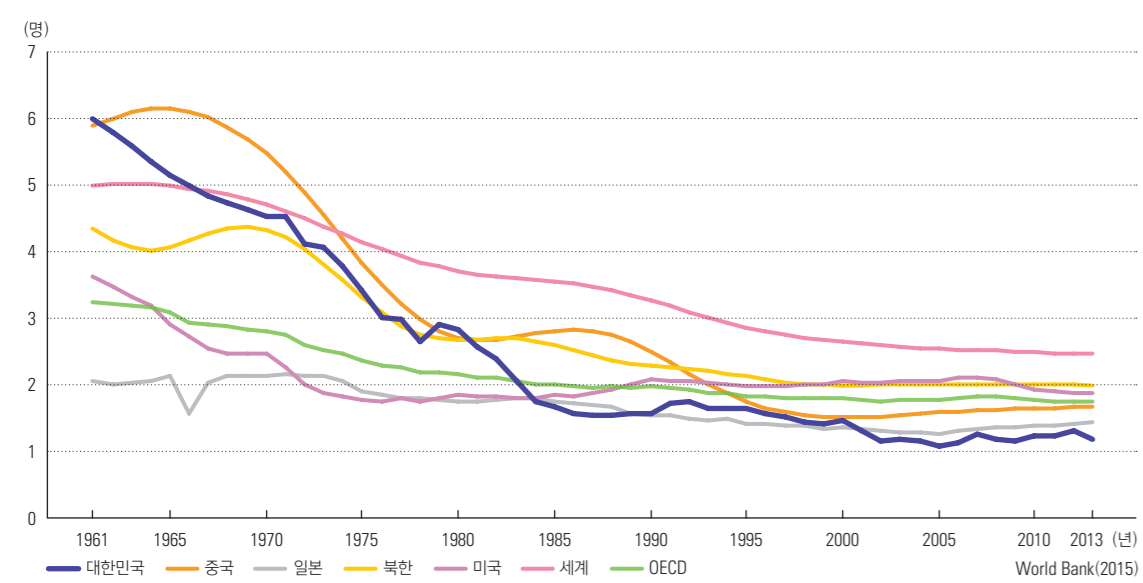
시·도별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시·도의 크기를 나타낸 카토그램은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양상을 잘 보여준다. 수도권 인구는 1960년 전체 인구의 21%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49%에 달할 만큼 증가하였다. 또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 인구 역시 20%에 달해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대까지 3명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 따라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동시에 정부에 의한 산아 제한 정책도 적극 시행되었다. 산아 제한 정책은 1980년대와 1990년에도 유지되었으며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인구 성장률은 1% 이하로 감소되었다. 1990년대 후반 합계 출산율이 1.5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2000년대 들어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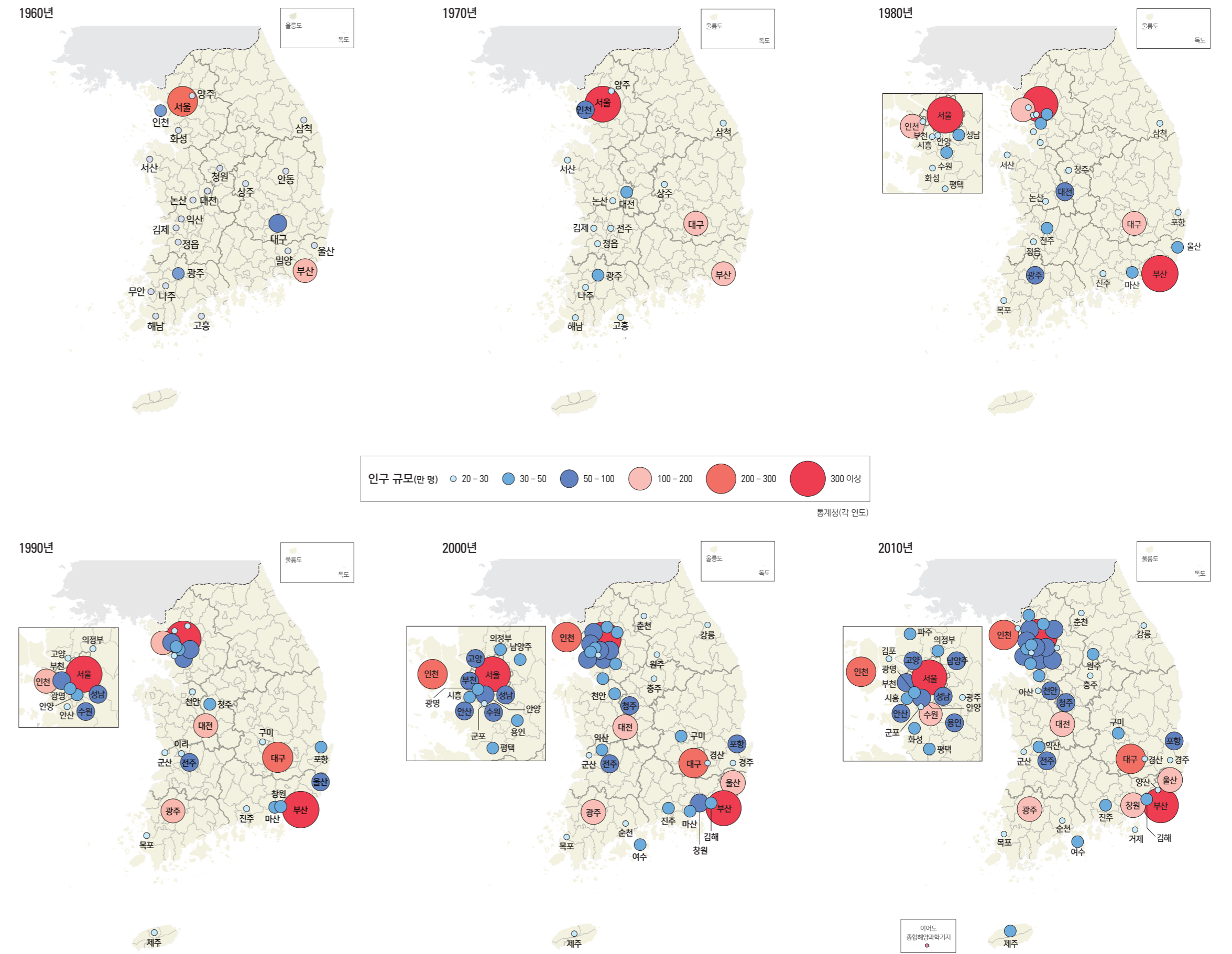
출산율 변화와 인구 정책 포스터



세계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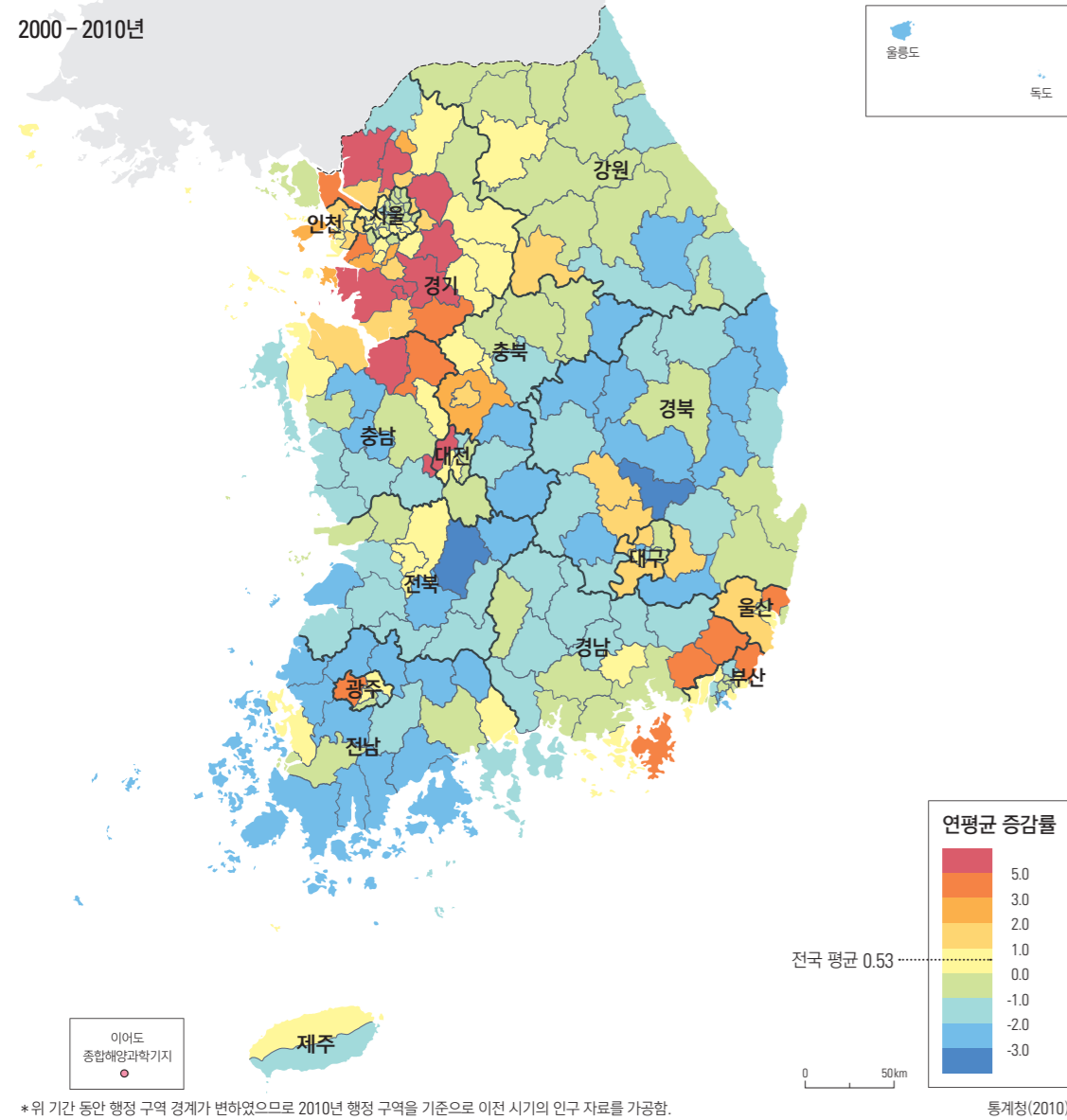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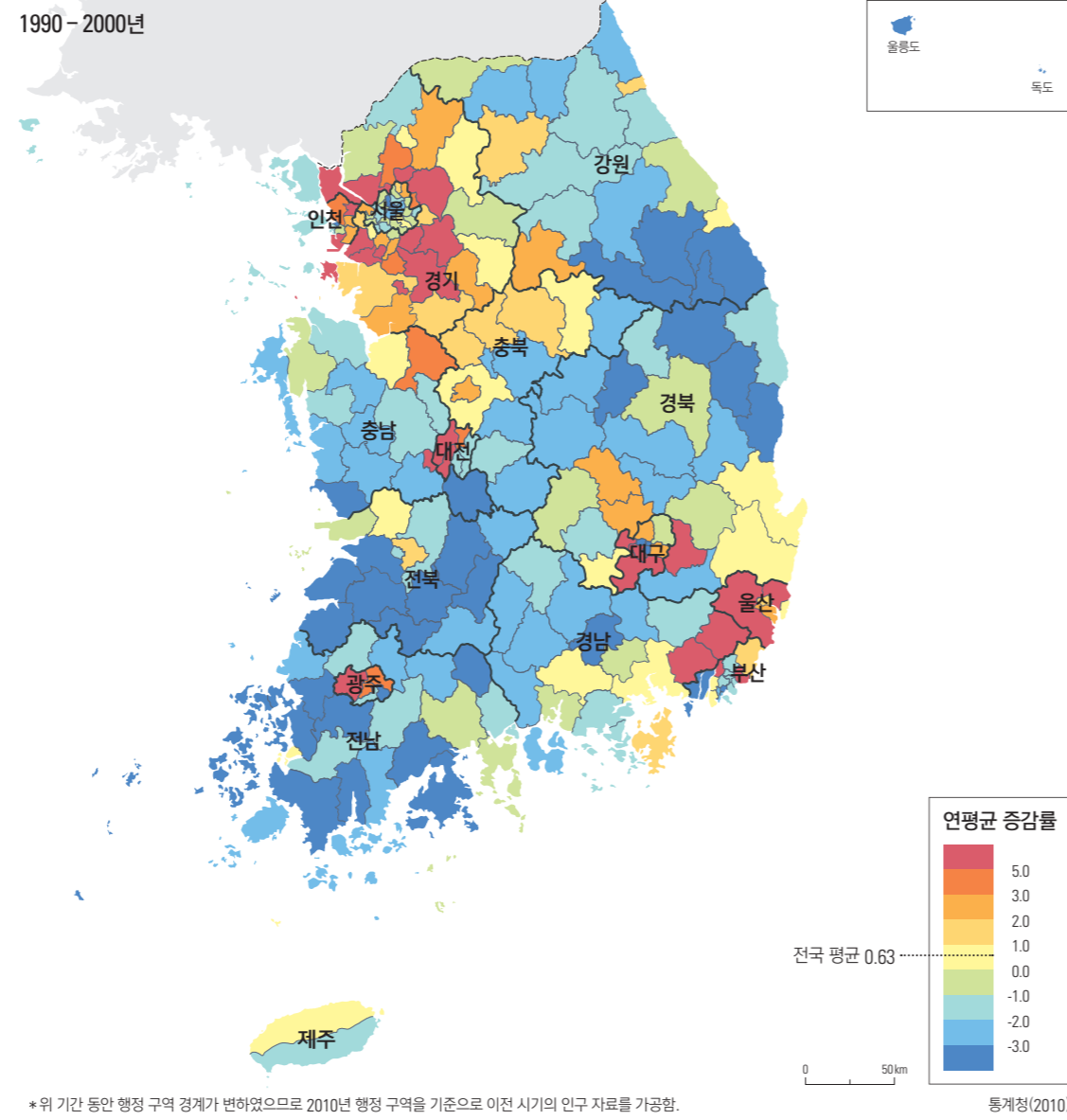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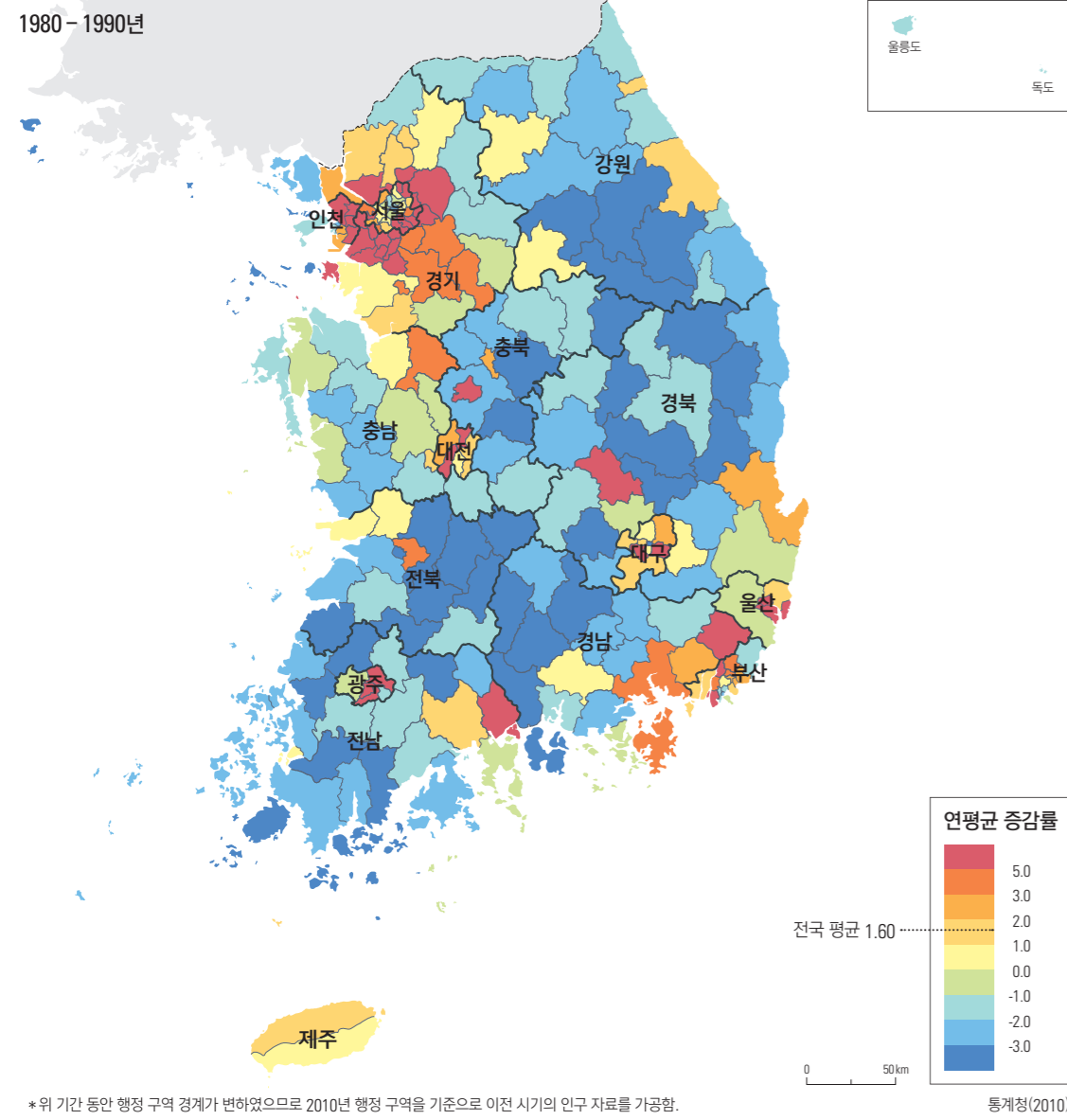


시기별 인구 순위 20위 시·군

인구 순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시·군	인구(명)	시·군	인구(명)	시·군	인구(명)	시·군	인구(명)	시·군	인구(명)	시·군	인구(명)
1	서울특별시	2,445,402	서울특별시	5,433,198	서울특별시	8,364,379	서울특별시	10,612,577	서울특별시	9,895,217	서울특별시	9,794,304
2	부산시	1,163,671	부산직할시	1,842,259	부산직할시	3,159,766	부산직할시	3,798,113	부산광역시	3,662,884	부산광역시	3,414,950
3	대구시	676,692	대구시	1,063,553	대구시	1,604,934	대구직할시	2,229,040	대구광역시	2,480,578	인천광역시	2,662,509
4	인천시	401,473	인천시	634,046	인천시	1,083,906	인천직할시	1,817,919	인천광역시	2,475,139	대구광역시	2,446,418
5	광주시	314,420	광주시	493,634	광주시	727,600	광주직할시	1,139,003	대전광역시	1,368,207	대전광역시	1,501,859
6	무안군	293,368	대전시	406,910	대전시	651,792	대전직할시	1,049,578	광주광역시	1,352,797	광주광역시	1,475,745
7	양주군	253,719	삼척군	272,879	울산시	418,326	울산시	682,411	울산광역시	1,014,428	울산광역시	1,082,567
8	정읍군	252,190	사천군	259,339	마산시	386,751	부천시	667,993	수원시	946,704	수원시	1,071,913
9	서산군	243,965	천주시	257,530	성남시	376,840	수원시	644,805	성남시	914,590	정천시	1,058,021
10	상주군	239,680	장흥군	253,671	성남시	367,161	성남시	540,754	고양시	763,971	성남시	949,964
11	김제군	234,187	양주군	244,722	수원시	310,476	전주시	517,059	부천시	761,389	고양시	905,076
12	안동군	232,446	논산시	238,488	시흥군	288,913	마산시	493,731	전주시	616,468	용인시	856,765
13	논산시	231,243	상주군	230,120	안양시	253,560	안양시	481,291	전주시	586,700	부천시	853,039
14	대전시	228,987	김제군	228,749	청주시	253,192	청주시	477,783	안양시	580,544	안산시	728,775
15	창원군	224,352	고흥군	225,065	삼척군	251,452	광명시	328,593	안산시	562,920	청주시	666,924
16	나주군	222,808	나주군	222,452	사천군	249,281	창원시	323,223	창원시	517,410	전주시	649,728
17	익산군	218,706	해남군	210,323	평택군	234,356	포항시	317,769	포항시	515,714	안양시	602,122
18	화성군	216,024	창원군	199,860	목포시	221,814	진주시	255,895	마산시	434,371	천안시	574,623
19	삼척군	209,456	평택군	199,700	부천시	221,463	안산시	252,418	천안시	417,835	남양주시	529,898
20	고흥군	209,199	영양군	195,256	정읍군	220,950	고양군	244,975	용인시	386,124	포항시	511,390

인구 20만 명 이상인 도시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60~1970년까지는 지방의 상당수 군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0년 현재 인구가 20만 명 이상인 전국 47개 도시 중 66%에 달하는 31개 도시가 수도권(19개 시)과 영남권(12개 시)에 밀집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이 외 충청권 5개 시, 호남권 7개 시, 강원도 3개 시, 제주도 1개 시 등이 인구 20만 명 이상이다. 시기별 인구 순위 20위까지의 시·군을 살펴보다라도 이런 현상이 재확인된다. 인구 20만 명 이상인 도시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60년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를 제외한 인구 상위 지역은 모두 군 지역이었다. 1970년까지도 지방의 군 지역이 인구 규모 20위권의 시·군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서울과 광역시, 수도권 및 영남권의 도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화의 영향으로 군 지역의 인구는 급감했고 도시 지역의 인구가 급증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상위 40개 시·군·구(1980-2010년)

순위	시·군·구	인구		증가율(%)
		1980년	2010년	
1	경기 안산시	37,517	728,775	1842.5
2	인천 연수구	22,007	277,429	1180.6
3	경기 시흥시	53,874	407,090	655.6
4	경기 군포시	40,253	278,083	590.8
5	인천 서구	61,855	395,777	539.8
6	경기 용인시	135,572	856,765	532.0
7	경기 고양시	155,601	905,076	481.7
8	대구 달서구	119,685	605,752	406.1
9	인천 계양구	67,949	336,809	395.7
10	대전 유성구	62,567	293,505	369.1
11	경기 의왕시	32,842	144,501	340.0
12	대전 서구	116,523	500,984	329.9
13	경기 남양주시	124,989	529,898	324.0
14	경기 과천시	16,074	66,704	315.0
15	경기 오산시	44,840	183,890	310.1
16	경기 광주시	57,367	228,747	298.7
17	충남 계룡시	10,592	41,528	292.1
18	인천 남동구	117,787	460,750	291.2
19	경기 부천시	221,463	853,039	285.2
20	경남 양산시	65,707	252,507	284.3
21	광주 광산구	103,607	370,586	257.7
22	부산 북구	86,986	302,141	247.3
23	경기 수원시	322,659	1,071,913	232.2
24	경남 김해시	150,787	494,510	228.0
25	경기 의정부시	133,177	417,412	213.4
26	경기 화성시	160,067	488,758	205.3
27	경기 김포시	74,973	224,350	199.2
28	울산 북구	60,007	169,399	182.3
29	경기 하남시	49,379	138,829	181.1
30	경기 구리시	66,490	185,550	179.1
31	대전 대덕구	75,631	204,969	171.0
32	서울 노원구	222,258	587,248	164.2
33	경기 양주시	73,780	187,911	154.7
34	경기 성남시	376,840	949,964	152.1
35	충남 천안시	231,018	574,623	148.7
36	충북 청주시	269,227	666,924	147.7
37	경기 안양시	253,560	602,122	137.5
38	서울 송파구	276,027	646,970	134.4
39	광주 서구	133,315	305,230	129.0
40	경북 구미시	177,400	402,607	1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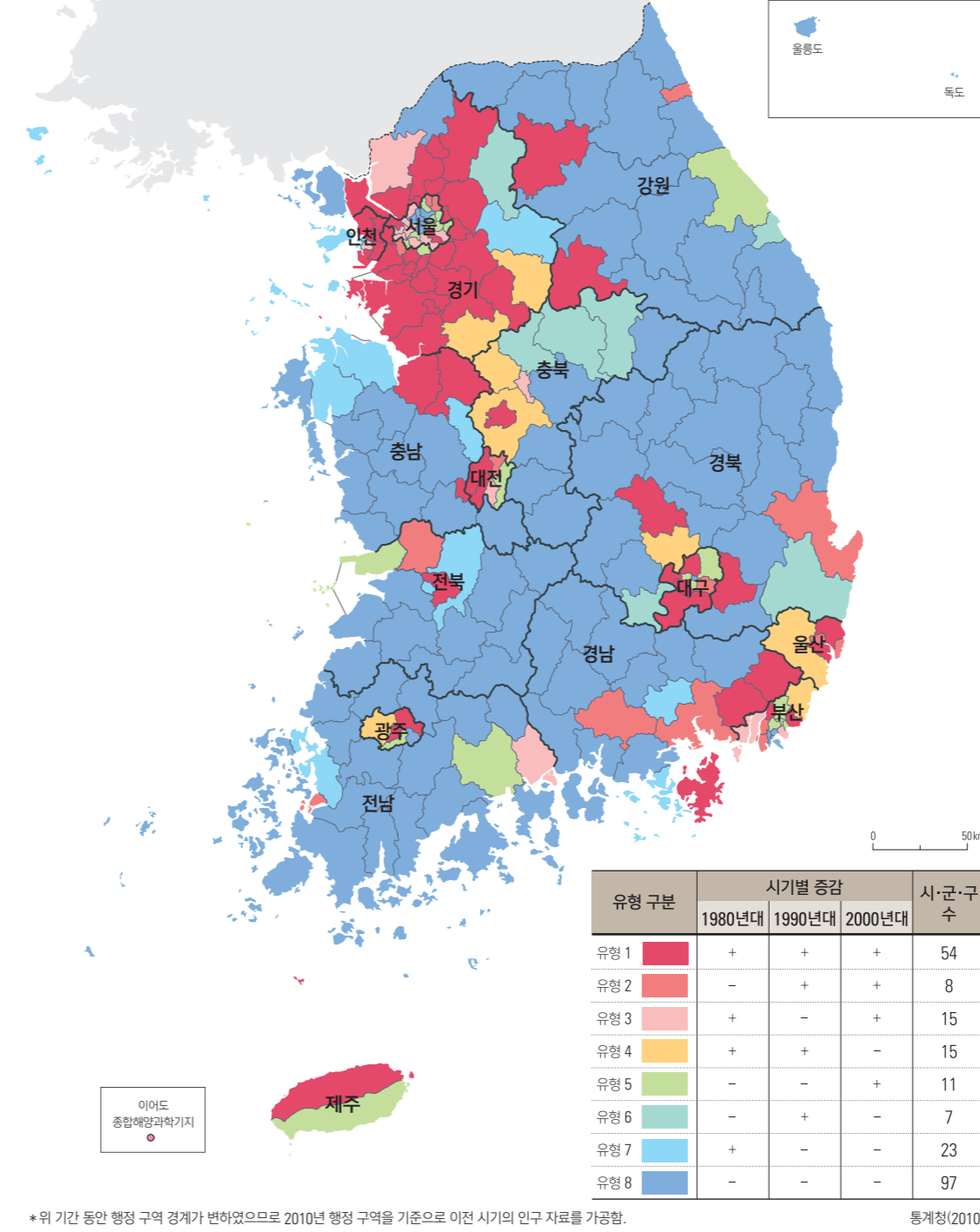
통계청(2010)

인구 감소율 상위 40개 시·군·구(198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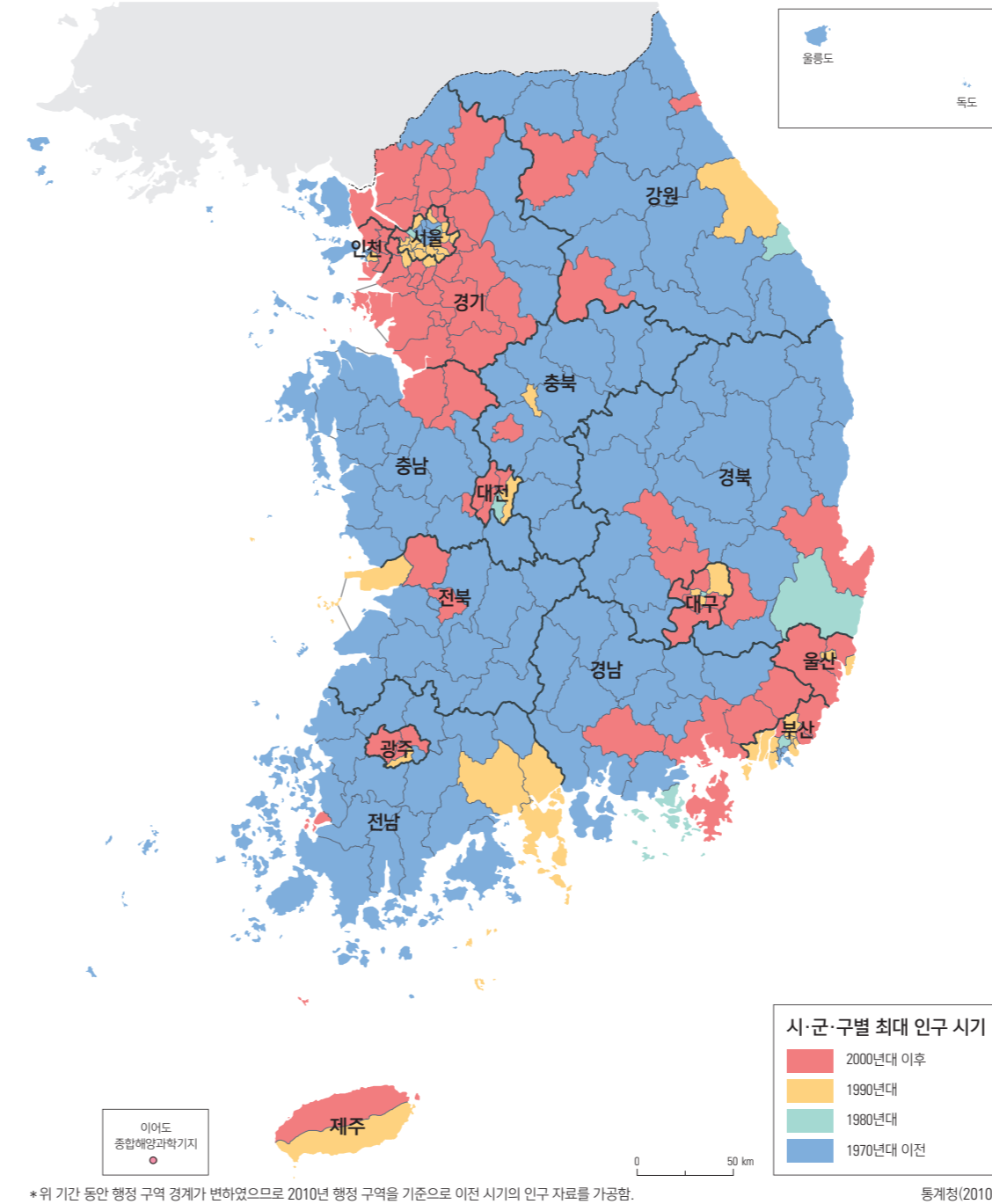
순위	시·군·구	인구		증가율(%)
		1980년	2010년	
1	전남 신안군	130,979	33,222	-74.6
2	전북 진안군	78,485	20,446	-73.9
3	강원 정선군	133,843	35,980	-73.1
4	전북 임실군	83,973	23,663	-71.8
5	경북 영양군	52,733	16,540	-68.6
6	전남 보성군	127,531	40,166	-68.5
7	전남 장흥군	112,961	35,763	-68.3
8	경북 봉화군	97,513	31,242	-68.0
9	전남 함평군	96,358	30,995	-67.8
10	전남 고흥군	191,639	63,392	-66.9
11	대구 중구	218,964	72,925	-66.7
12	전북 장수군	57,820	19,424	-66.4
13	전남 진도군	83,424	28,565	-65.8
14	전북 순창군	73,635	25,241	-65.7
15	경북 의성군	146,063	51,247	-64.9
16	경북 예천군	120,231	43,015	-64.2
17	전남 곡성군	75,101	27,272	-63.7
18	강원 영월군	95,506	35,500	-63.3
19	충북 괴산군	85,469	31,392	-63.3
20	전북 고창군	144,961	53,333	-63.2
21	전남 완도군	126,762	46,777	-63.1
22	경북 장성군	64,520	24,008	-62.8
23	전남 강진군	91,811	34,204	-62.7
24	경북 군위군	53,460	19,993	-62.6
25	충북 보은군	80,929	30,509	-62.3
26	경남 함안군	115,685	43,639	-62.3
27	전북 무주군	56,680	21,827	-61.5
28	충북 단양군	72,905	28,165	-61.4
29	전남 구례군	57,967	22,419	-61.3
30	전북 부안군	131,013	50,814	-61.2
31	전남 해남군	168,689	66,042	-60.8
32	경남 의령군	64,175	25,602	-60.1
33	경북 영덕군	91,206	36,428	-60.1
34	전남 장성군	94,869	38,507	-59.4
35	전남 영광군	119,600	48,663	-59.3
36	충남 정양군	72,697	29,755	-59.1
37	경북 울릉군	18,960	7,764	-59.1
38	충남 서천군	129,512	53,914	-58.4
39	전남 나주시	186,005	78,679	-57.7
40	경남 남해군	103,123	43,919	-57.4

통계청(2010)

시기별 인구 증감



최대 인구 시기



시기별 인구 증감 유형

광역 자치 단체	광역 자치 단체의 인구 증감 유형	유형별 시·군·구 수								합계
		3시기 증가		2시기 증가, 1시기 감소		1시기 증가, 2시기 감소		3시기 감소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전국	+++	54	8	15	15	11	7	23	97	230
서울	+-	2		8	2			8	5	25
부산	+-	2	1	2	2			5	4	16
대구	++	3			1			3	1	8
인천	+++	5		1		3			1	10
광주	+++	2	1					1	1	5
대전	+++	2		1	1			1		5
울산	+++	2	1		2					5
경기	+++	23	2	1	1	1	1	1	1	31
강원	---	2			1		1	1	13	18
충북	-++	1	2	1			3		5	12
충남	---	3							10	16
전북	---	1			1	1		1	10	14
전남	---			1	1	1		1	18	22
경북	---	2	1		1		2		17	23
경남	+++	3			2	2			11	18
제주	+-	1						1		2

통계청(2010)

* 2010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의 서귀포시는 행정시이나 시·군·구로 분류함.

시·군·구의 시기별 인구 증감 유형을 살펴보면

세 시대(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모두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서울은 25개 구 중 세 시기 모두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두 곳뿐이었고 2000년대에는 인구가 감소한 구가 15개에 달해 인구의 상당수가 경기도로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세 시기 모두 감소한 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특히 전남은 세 시기 모두 증가한 지역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했다. 충남은 2000년대에 인구가 증가한 곳이 16개 시·군 중 6개에 달해 2000년대 충남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를 살펴보면 서울은 2000

년대에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4개에 지나지 않아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은 서울과 유사하게 인구 유출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와 인천은 2000년 이전 인구가 최대인 구가 각각 4개와 5개로 전체 구의 절반을 차지해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00년 이후 인구가 최대인 시·군이 31개 시·군 중 25개를 차지해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나머지 도 지역에서는 인구가 최대인 시기가 1970년대 이전인 시·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 유출이 1970년대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도의 최대 인구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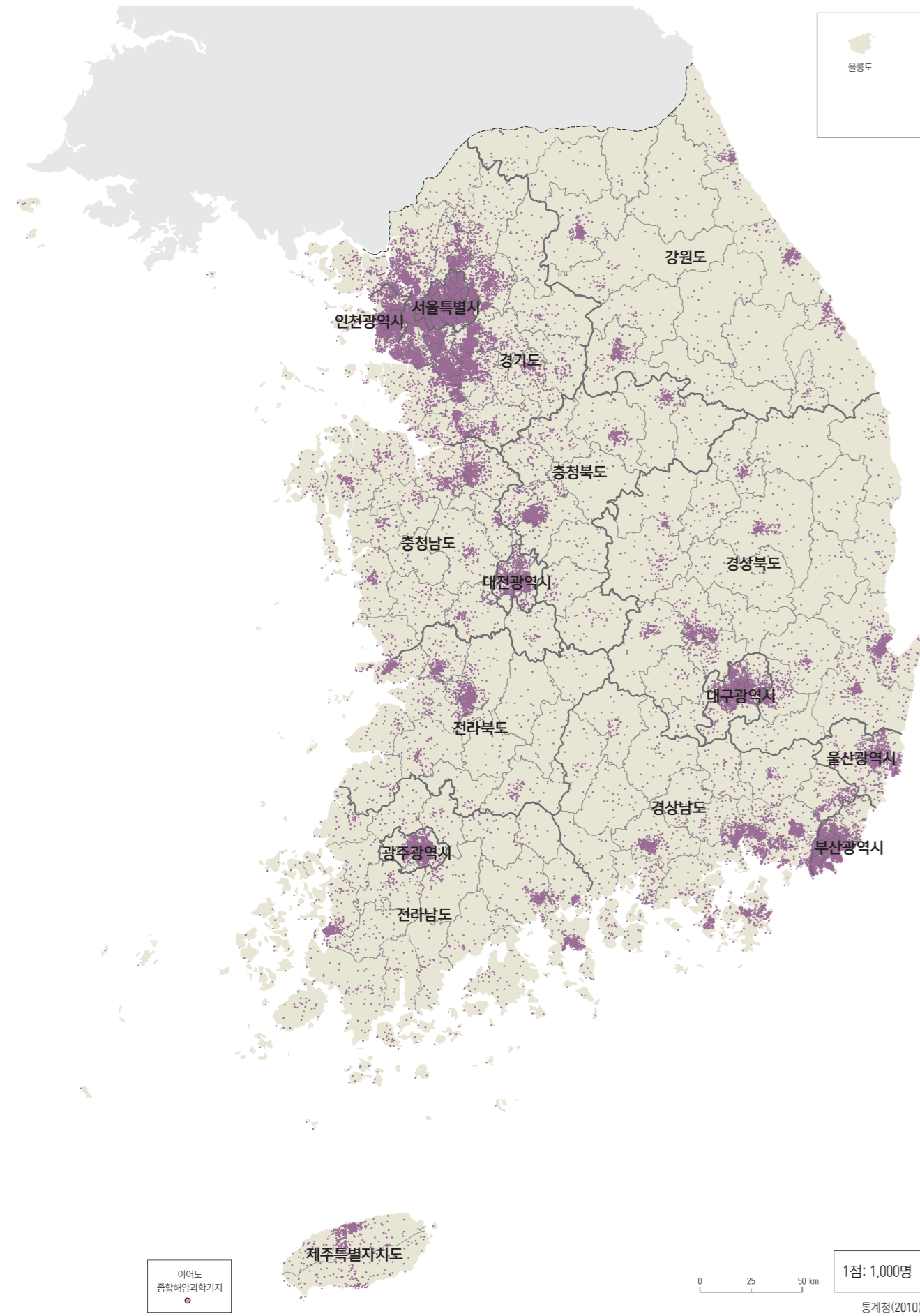
광역 자치 단체	최대 인구 시기	인구 최대 시기별 시·군·구 수				합계
		197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서울	1990년대	6	2	13	4	25
부산	1990년대	4	1	8	3	16
대구	2000년대 이후	0	1	3	4	8
인천	2000년대 이후	4	0	1	5	10
광주	2000년대 이후	1	0	1	3	5
대전	2000년대 이후	0	1	1	3	5
울산	2000년대 이후	0	0	2	3	5
경기	2000년대 이후	4	0	2	25	31
강원	1970년대 이전	13	1	1	3	18
충북	1970년대 이전	10	0	1	1	12
충남	1970년대 이전	13	0	0	3	16
전북	1970년대 이전	11	0	1	2	14
전남	1970년대 이전	18	0	3	1	22
경북	1970년대 이전	18	1	0	4	23
경남	2000년대 이후	12	1	0	5	18
제주	2000년대 이후	0	0	1	1	2
전국	2000년대 이후	114	8	38	70	230

통계청(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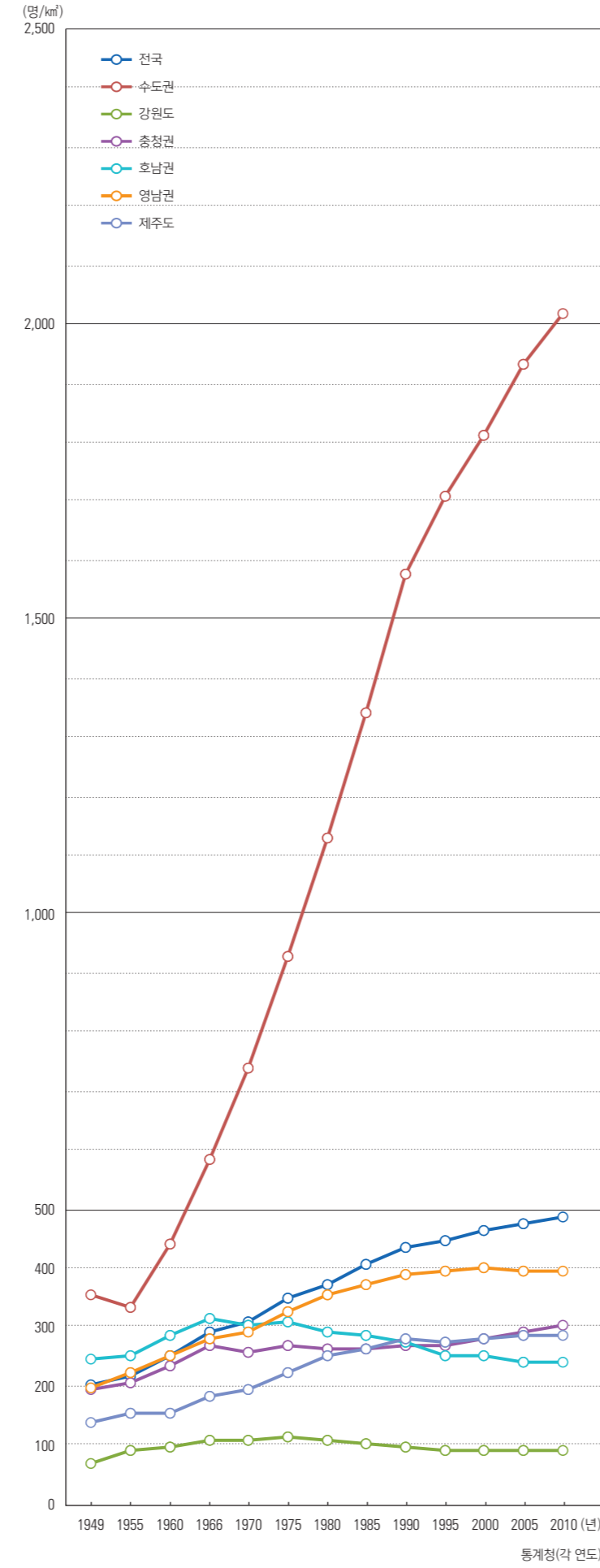
* 2010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의 서귀포시는 행정시이나 시·군·구로 분류함.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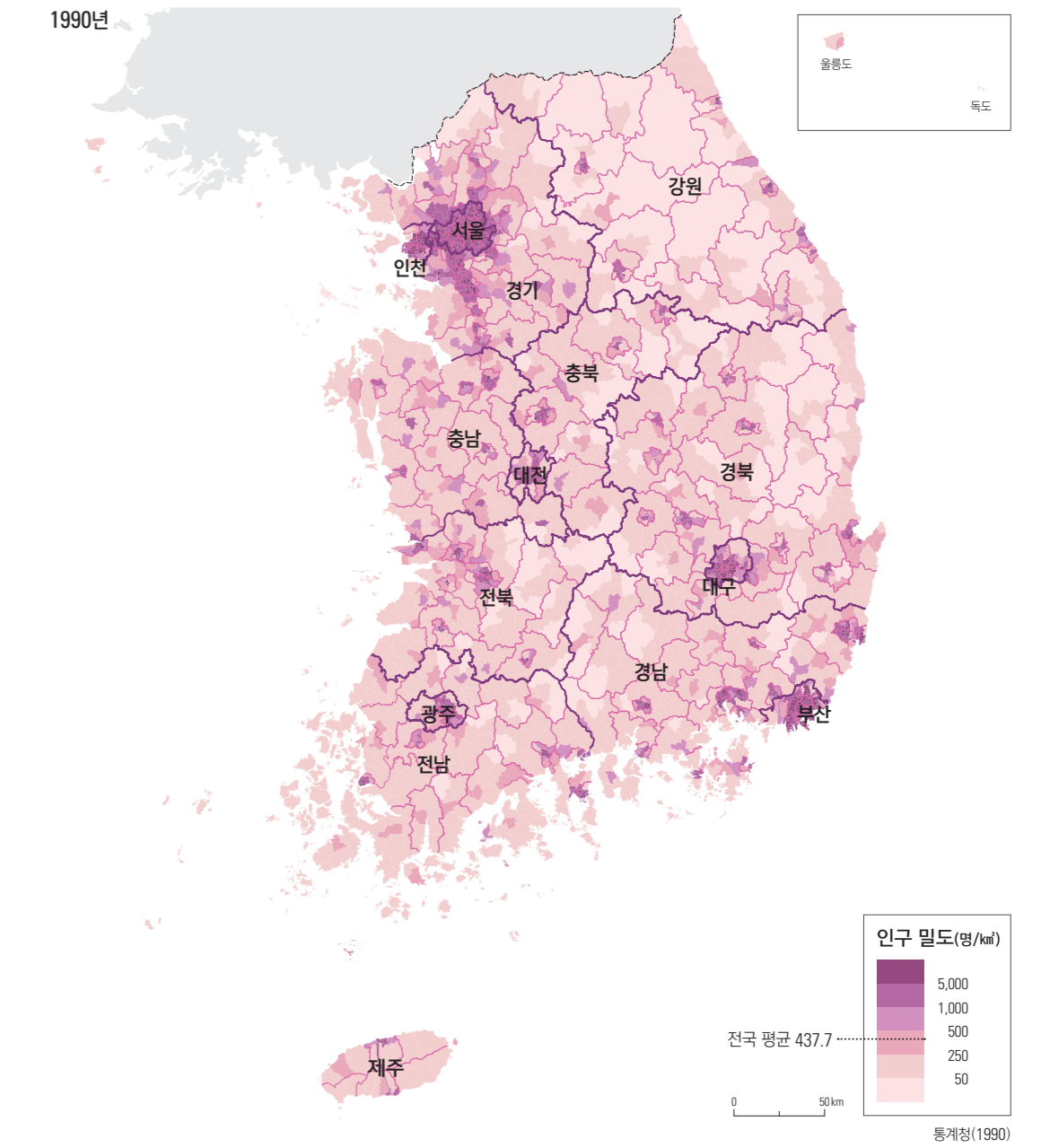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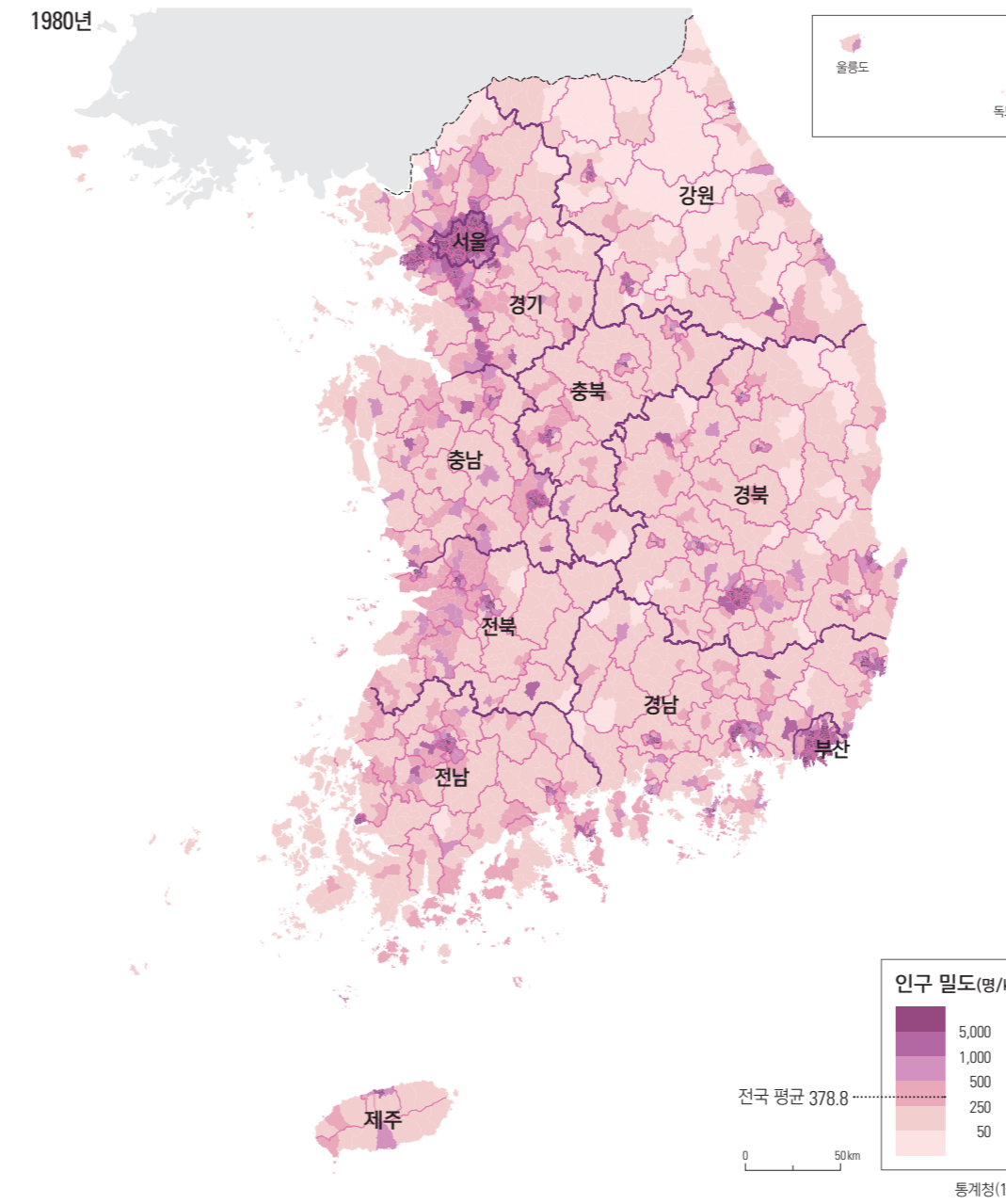
인구 분포(2010년)



권역별 인구 밀도 변화



동·읍·면 인구 밀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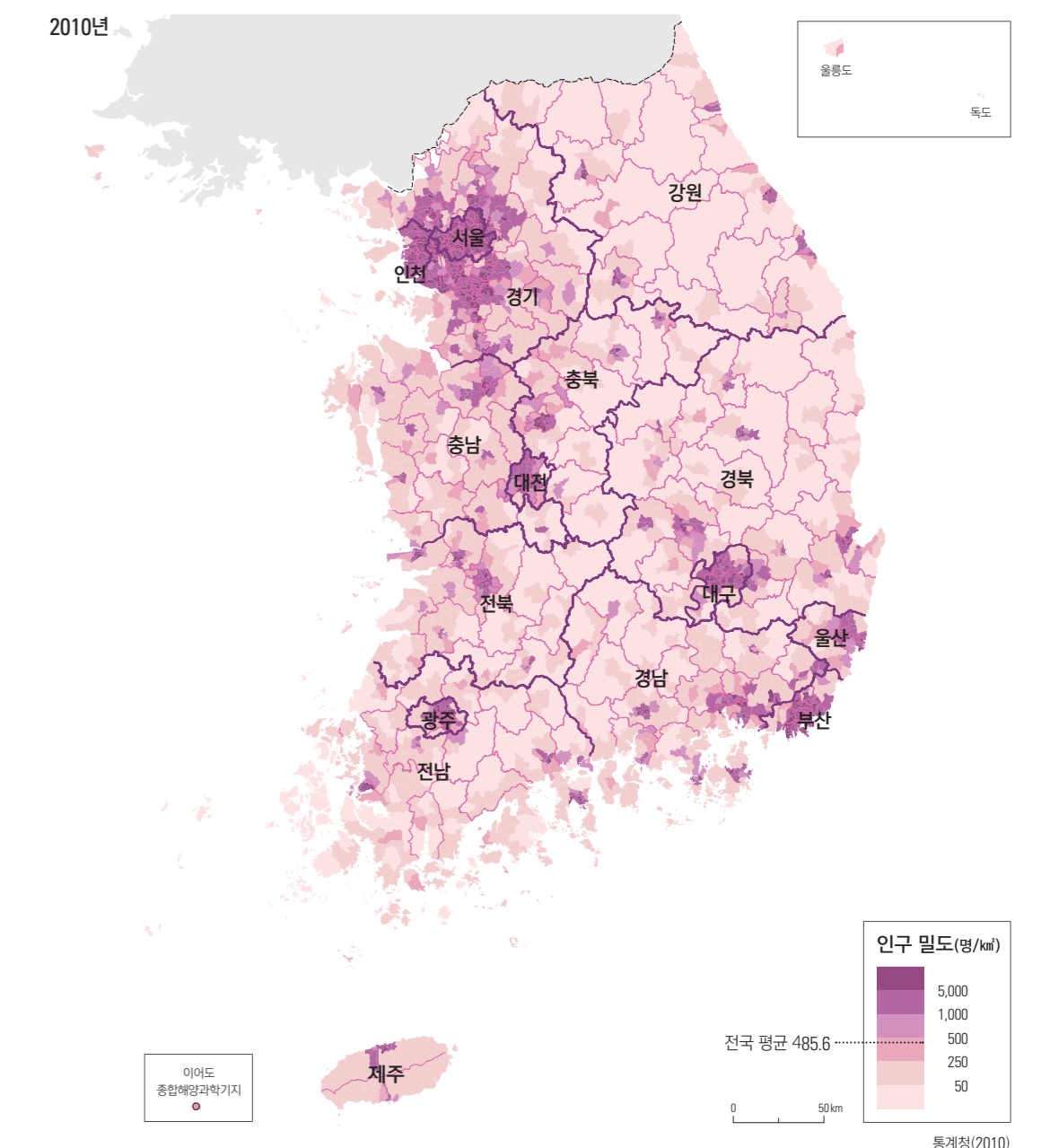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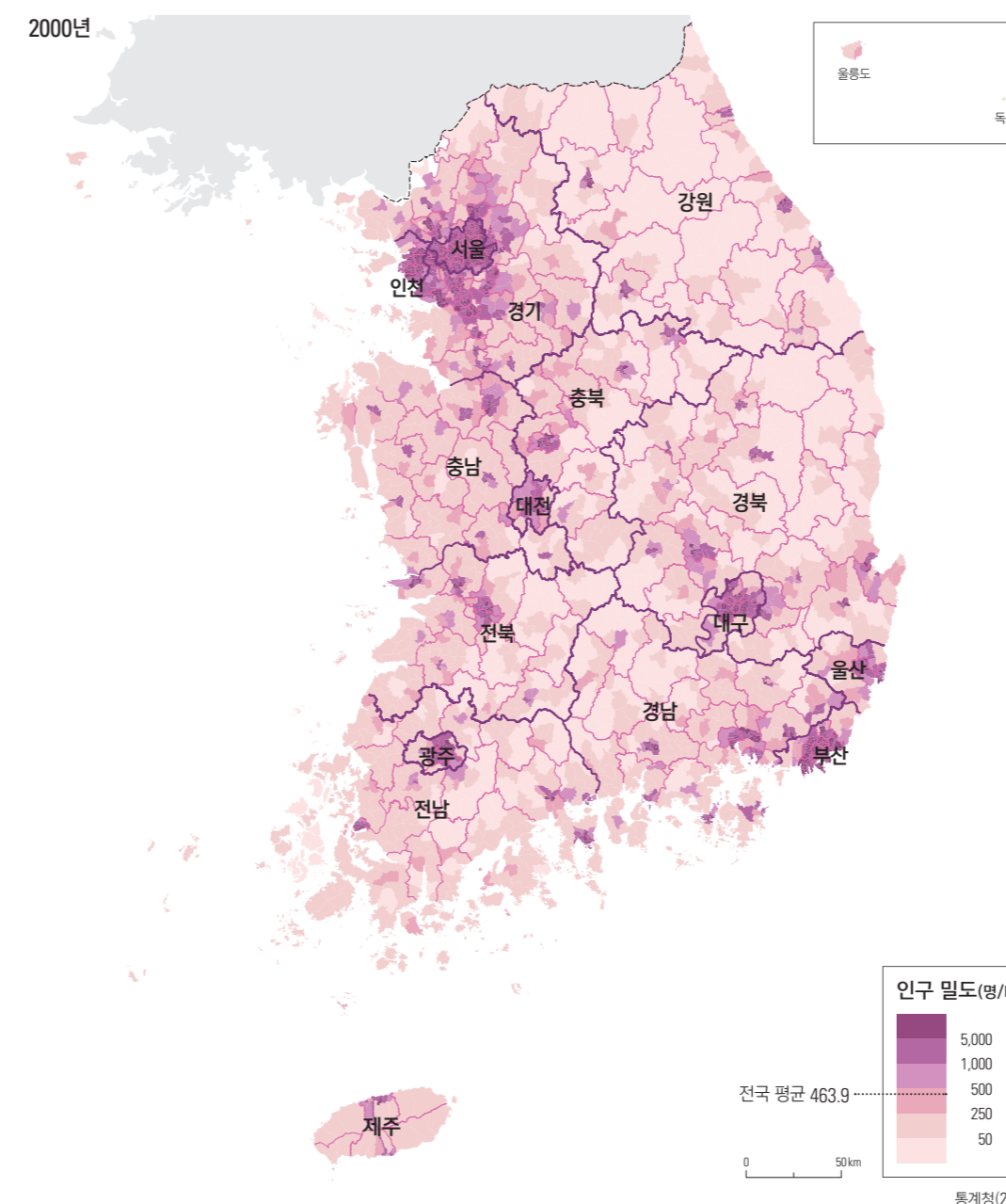
우리나라 동·읍·면의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면부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동부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동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82%에 달한다. 동·읍·면별로 나타낸 시기별 인구 밀도 지도를 살펴보다도 이런 현상을 잘 알 수 있는데, 1980년대에 비해 2010년의 면부 인

구 밀도가 확연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 인구 밀도를 살펴보면 서울 남쪽의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인구 밀도 분포에서는 서울의 외연적 확산이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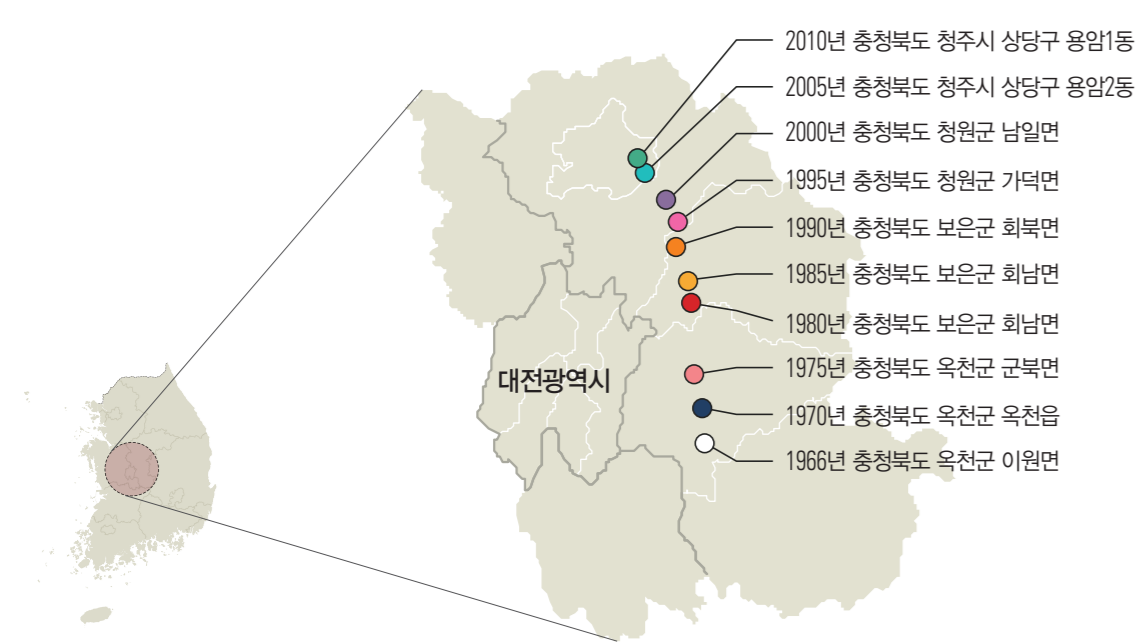
동·읍·면의 인구 구성비(%)

행정 구역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동부	27.99	41.15	57.25	74.43	79.67	81.97
읍부	9.20	9.07	12.13	8.30	8.14	8.65
면부	62.81	49.78	30.62	17.27	12.19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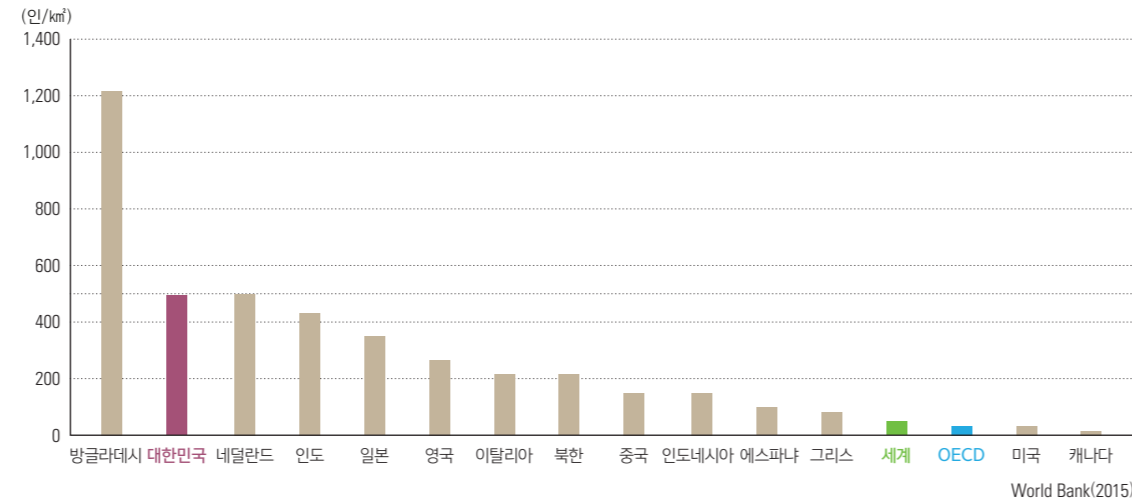
통계청(각 연도)



인구 중심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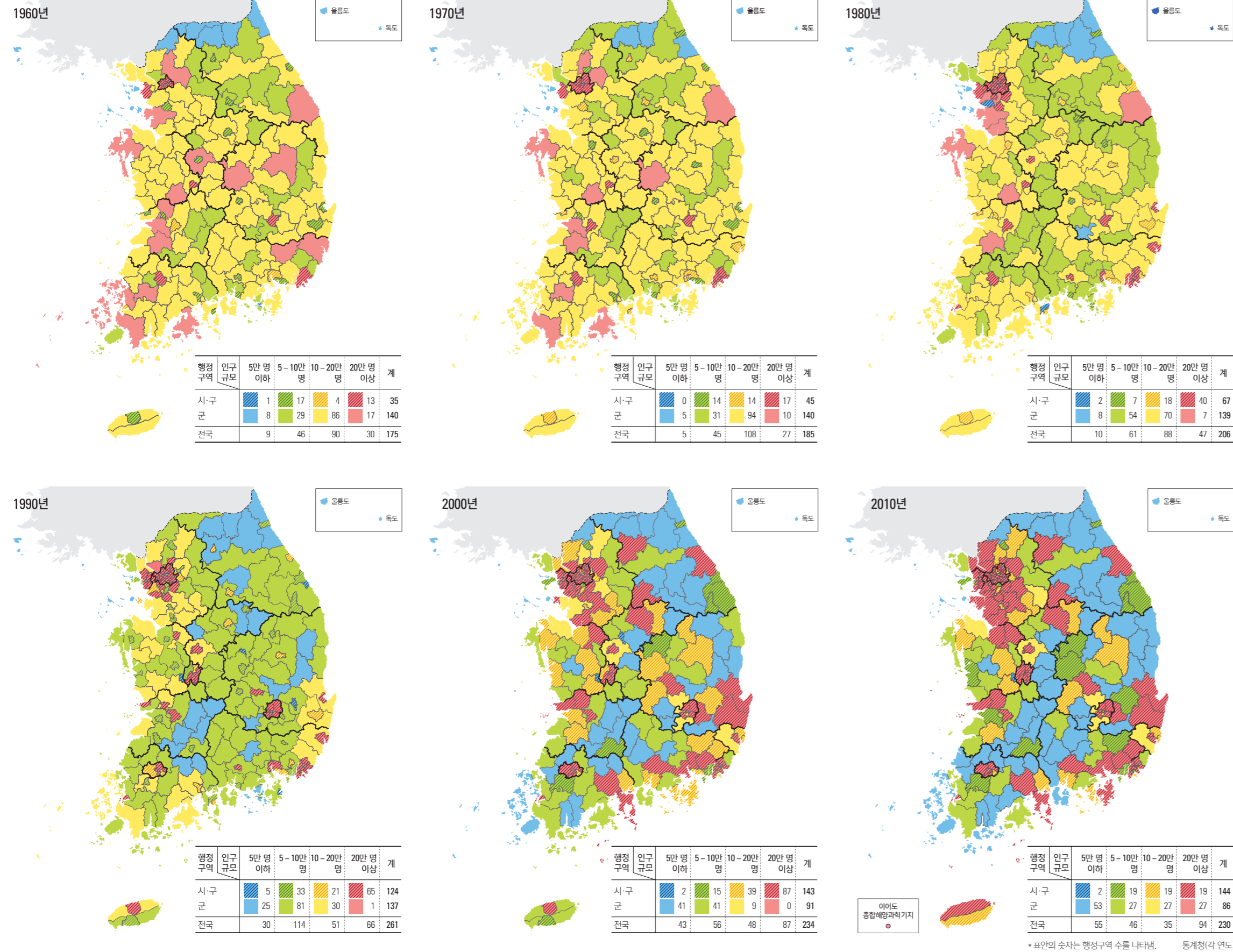
세계 주요국 인구 밀도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1949년 약 210명/km²에서 2010년 약 470명/km²로 급증하였다.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와 몇몇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1966년까지 전국 평균 인구 밀도를 넘는 지역은 수도권과 호남권이었으나 현재는 수도권만이 전국 평균 인구 밀도를 상회한다.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1949년 약 350

명/km²에서 2010년 현재 약 1,990명/km²로 증가하여 모나코(18,500명/km²), 싱가포르(7,230명/km²) 등의 도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증가는 인구 중심점의 분포에서도 나타나 우리나라의 인구 중심점은 지속적으로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군·구 인구 규모



시·군·구의 인구 규모를 나타낸 지도는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1960년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는 강원도 일부와 태백-소백산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나 2010년 현재는 대도시와 그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다(1990년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 수가 1980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것은 1980년대 실시된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도농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1980년 206개였던 전국 시·군·구 행정 구역 수가 1990년 261개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시·군·구의 인구 규모가 갑자기 줄어들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임). 우리나라 시·군·구의 인구 규모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인구 5만 명 이하 시·군·구 수와 20만 명 이상 시·군·구의 수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인구 5만 명 이하 시·군·구는 9개뿐이었으나 2010년 현재는 55개로 급증하였고, 인구 20만 명 이상 시·군·구 역시 1960년 30개에서 2010년 현재 94개로 급증하였다. 인구 5만 명 이하의 시·군·구가 증가한 것은 지방의 군 지역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고, 인구 20만 명 이상의 시·군·구가 증가한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 그리고 지방 중소 도시 등 도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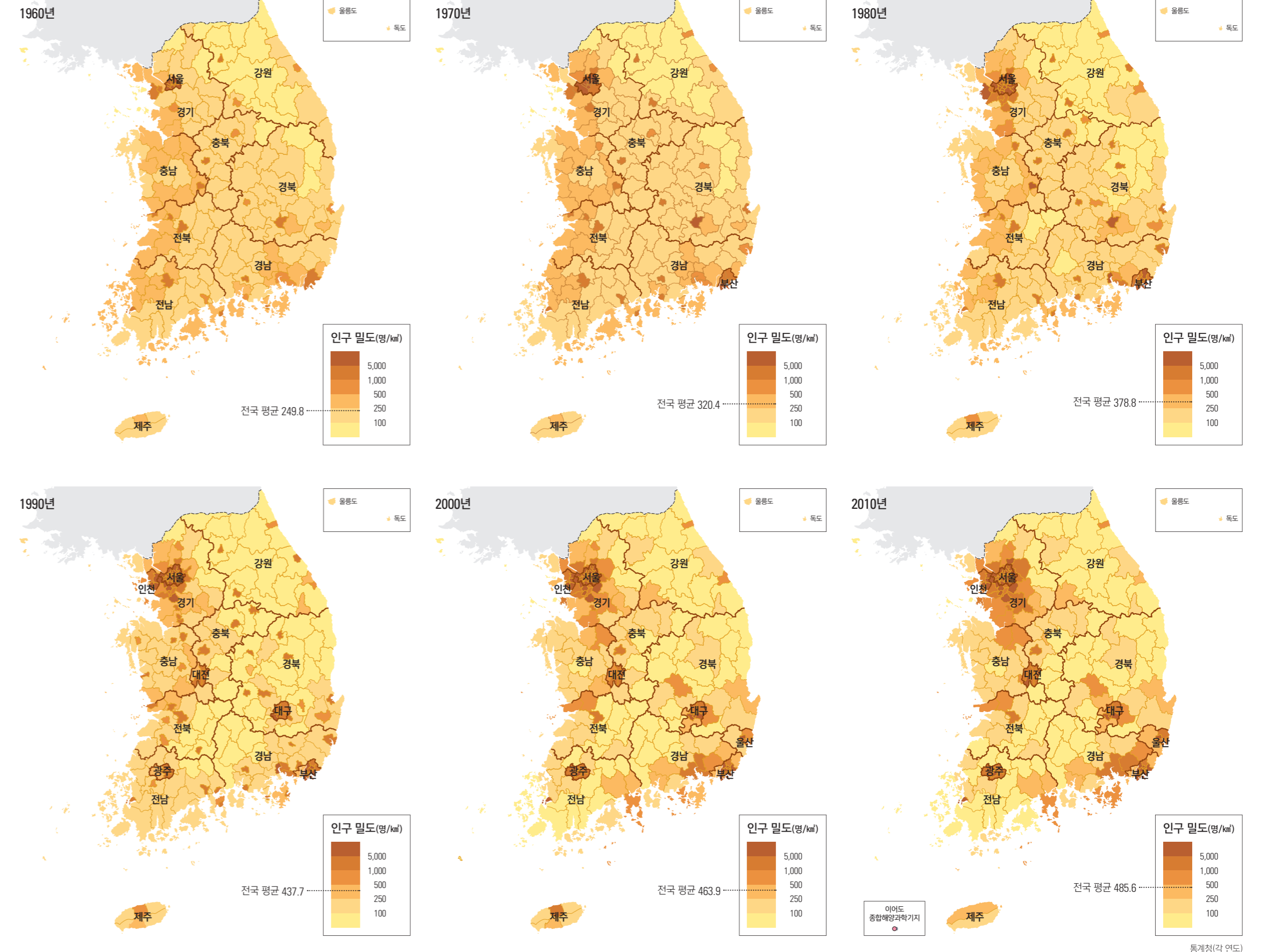
인구 규모별 시·군·구 수

구분	1960년					1985년					2010년				
	5만 명 미만	5~10만 명	10~20만 명	20만 명 이상	합계	5만 명 미만	5~10만 명	10~20만 명	20만 명 이상	합계	5만 명 미만	5~10만 명	10~20만 명	20만 명 이상	합계
전국	9	46	90	30	175	15	89	72	50	226	55	46	35	94	230
수도권	2	4	13	11	30	1	11	12	26	50	2	7	11	46	66
서울	0	0	1	8	9	0	0	0	17	17	0	0	2	23	25
경기	2	4	12	3	21	1	10	11	7	29	1	4	9	17	31
인천	-	-	-	-	-	0	1	1	2	4	1	3	0	6	10
강원권	5	9	5	1	20	6	9	6	0	21	10	5	0	3	18
충청권	0	4	19	4	27	1	11	15	3	30	8	10	6	9	33
충북	0	4	7	1	12	1	7	4	1	13	6	2	2	2	12
충남	0	0	12	3	15	0	4	11	2	17	2	8	4	2	16
대전	-	-	-	-	-	-	-	-	-	0	0	0	0	5	5
호남권	0	12	22	8	42	3	20	20	3	46	17	11	3	10	41
전북	0	6	8	3	17	2	7	8	1	18	5	5	1	3	14
전남	0	6	14	5	25	1	13	12	2	28	12	6	1	3	22
광주	-	-	-	-	-	-	-	-	-	0	0	1	4	5	5
영남권	2	16	29	6	53	4	36	18	17	75	18	13	14	25	70
경북	1	8	15	3	27	4	16	10	1	31	11	4	4	4	23
대구	-	-	-	-	-	0	0	1	5	6	0	1	2	5	8
경남	1	8	14	3	26	0	18	6	3	27	6	5	2	5	18
부산	-	-	-	-	-	0	2	1	8	11	1	3	3	9	16
울산	-	-	-	-	-	0	-	-	-	0	0	3	2	5	5
제주도	0	1	2	0	3	0	2	1	1	4	0	0	1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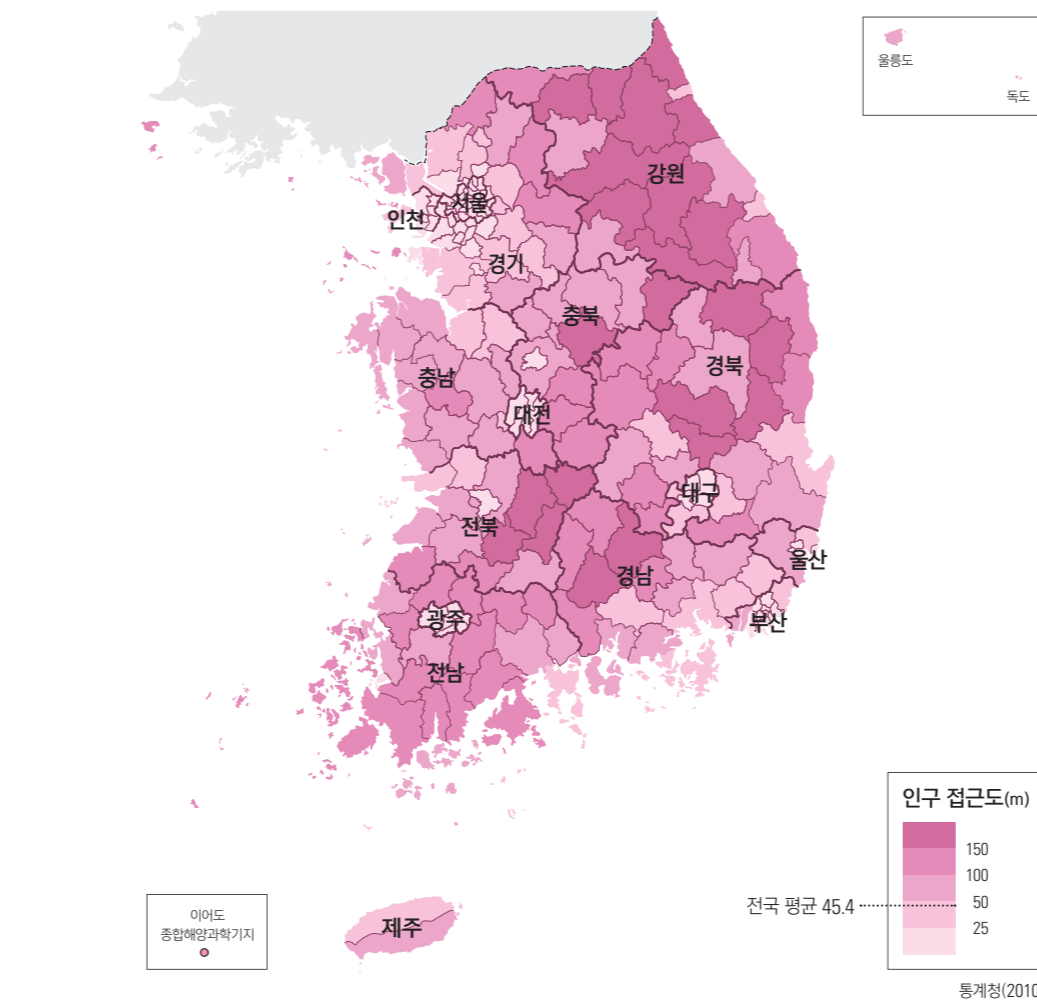
* 2010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이나 시·군·구로 분류함.

통계청(각 연도)

시·군·구 인구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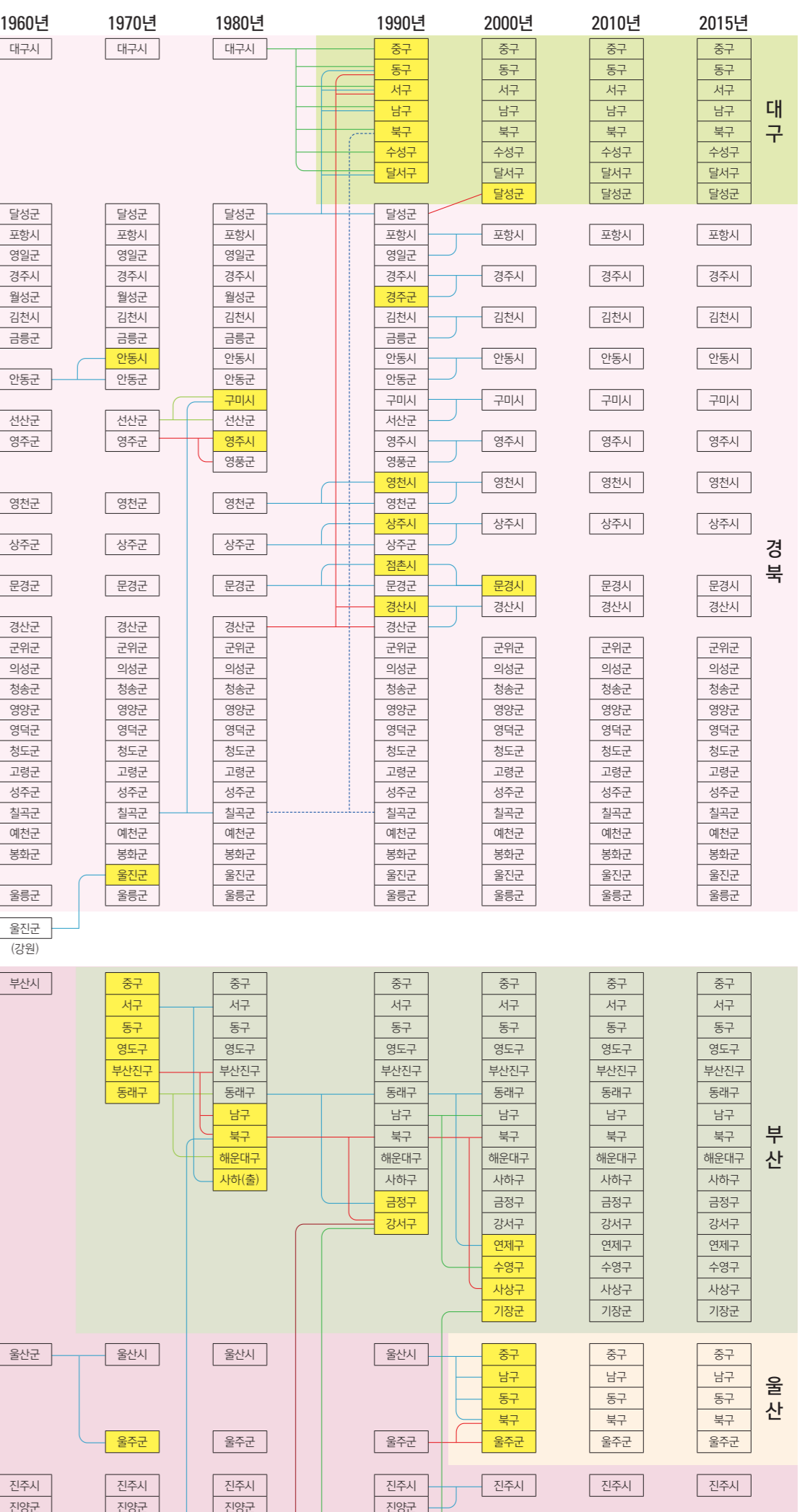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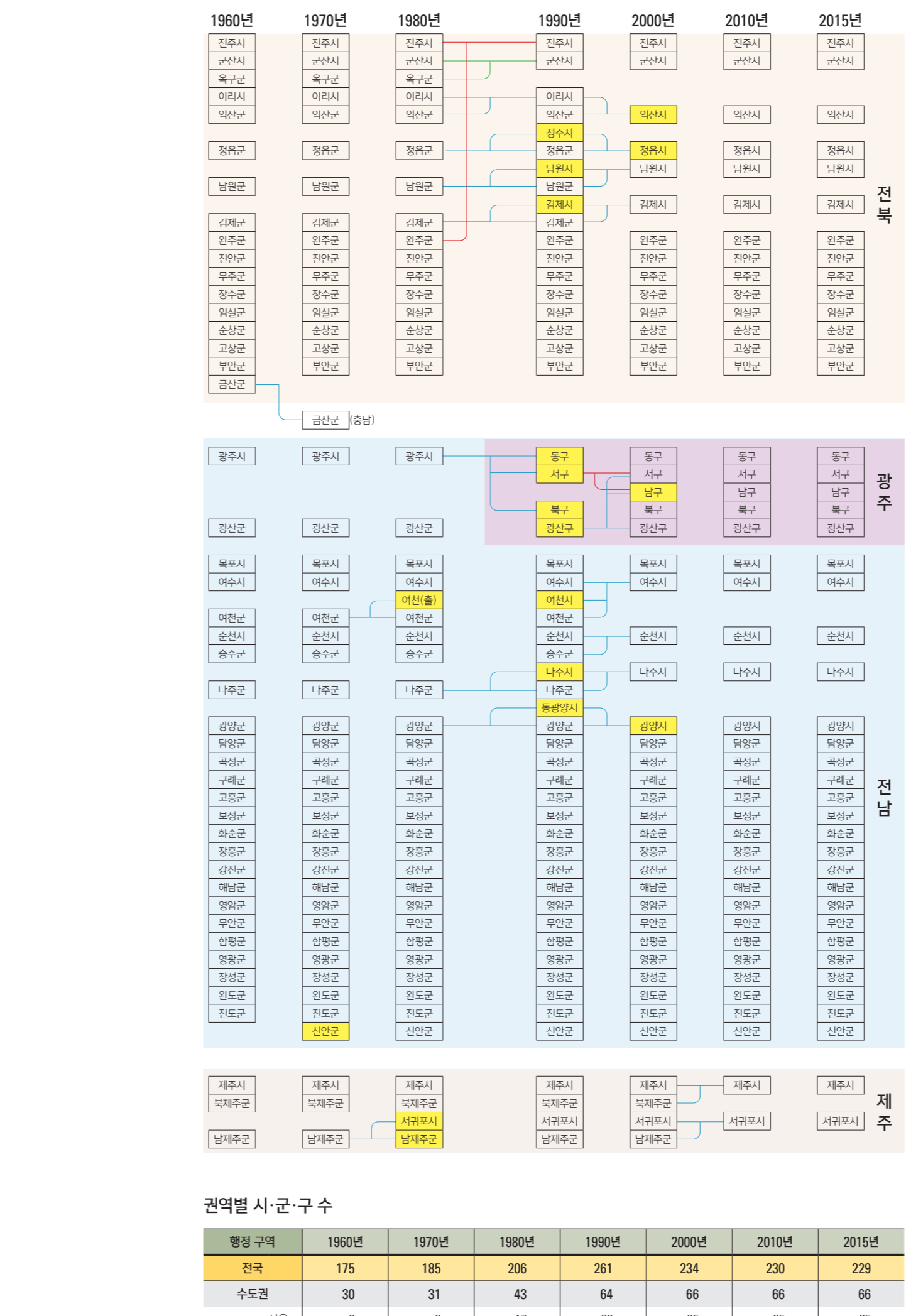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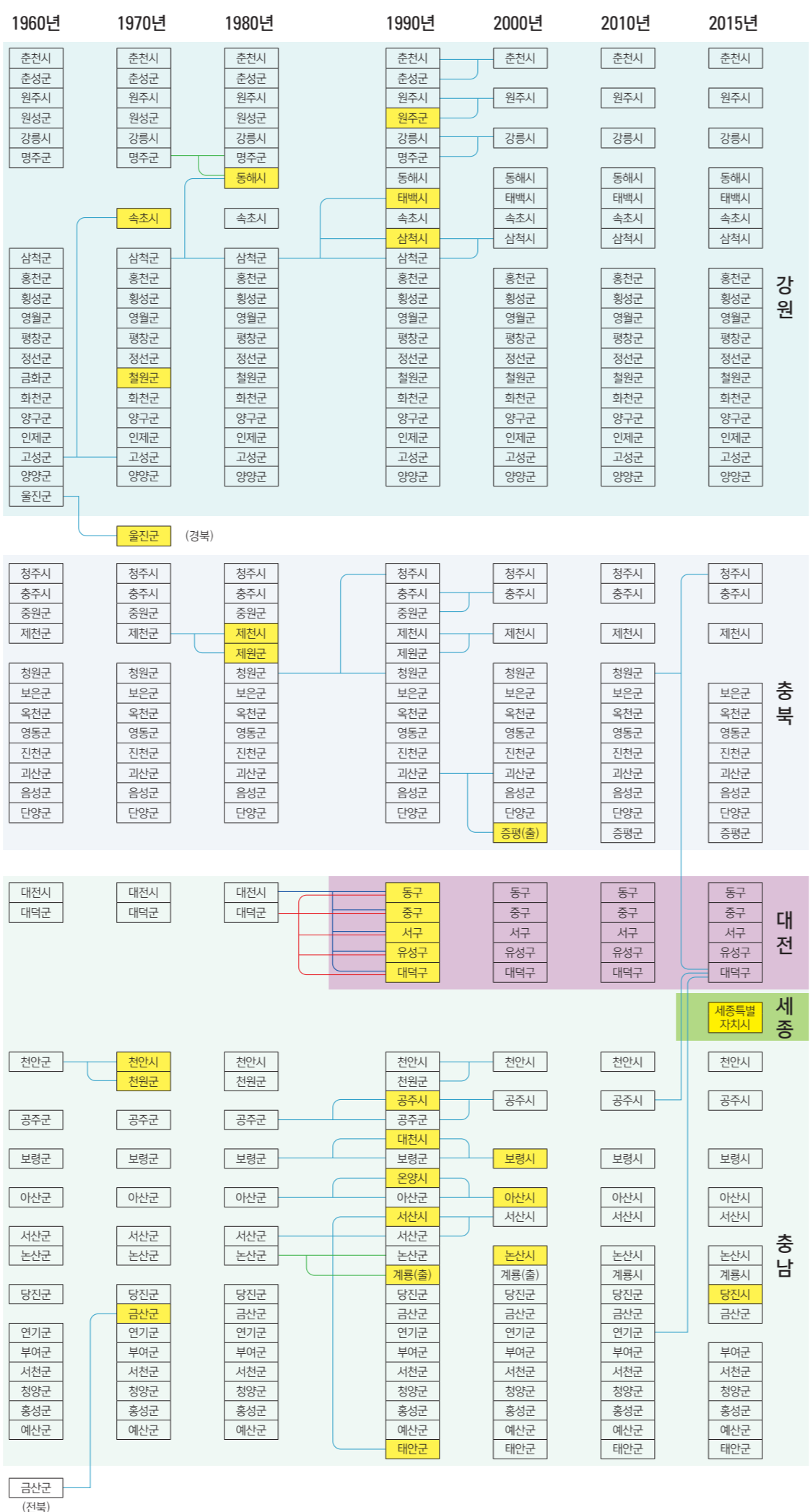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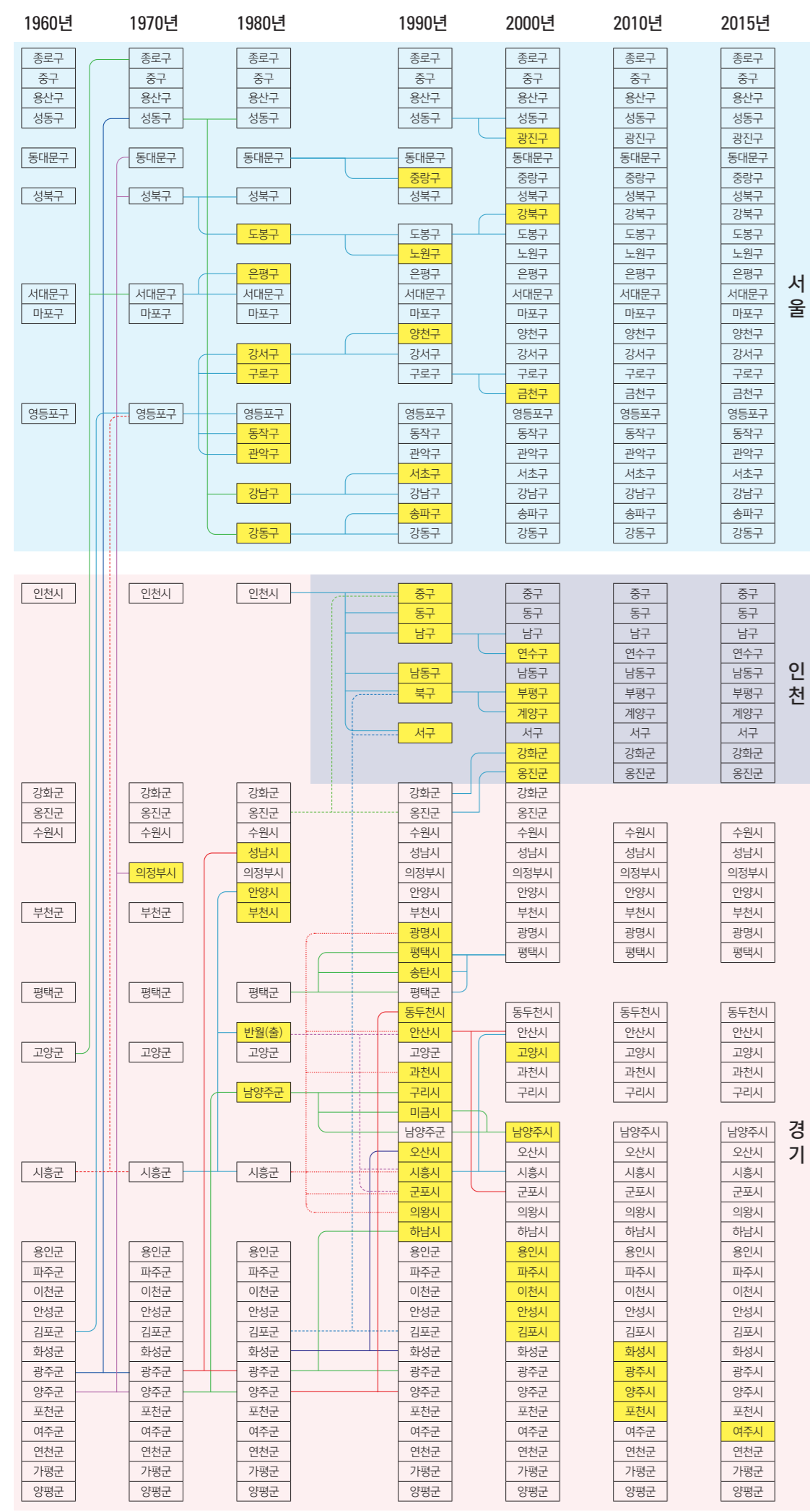
인구 접근도(2010년)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1960년 약 250명/km²에서 2010년 약 490명/km²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시·군·구의 인구 밀도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인구 밀도의 지역적 분포가 급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과 1970년에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해안, 내륙, 태백산지 순으로 인구 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해안을 따라 충남 서부, 전북 서부, 전남 서부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높았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 급격하게 진행된 이촌향도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였다(1980년대 행정 구역 체계의 개편으로 도농 분리가 이루어져 1990년의 인구 밀도 지도에는 인구 밀도가 높은 소규모 도시가 많이 나타남).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 밀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군 지역의 인구 밀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태백산지와 소백산지, 전남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아졌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1960년 비해 2010년 현재 인구 밀도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도상으로는 인구 밀도가 100명/km² 이하인 저인구

밀도 지역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한편, 인구 밀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구의 밀집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 접근도를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인구 접근도는 단위 지역에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인접 사람과의 평균 거리(√(면적(m²)/인구(명)))로 계산한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으면 인구 접근도는 낮고, 인구 밀도가 낮으면 인구 접근도는 높다.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접근도는 45.4m이고 시·군·구에서 인구 접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으로 237.7m이며 인구 접근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양천구로 6.1m이다.

시·군·구 행정 구역의 변화



시기별 행정 구역 변화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특징	· 서울의 확대	· 수도권 시 증가 · 영남권 시 증가 · 부산의 확대	· 수도권 시 증가 · 영남권 시 증가 · 시·군 분리	· 시·군 통합 (도농 통합시, 1995년)	-	-
광역 자치 단체의 변화	· 부산직할시 (1963년)	-	· 대구직할시(1981년) · 인천직할시(1981년) · 광주직할시(1986년) · 대전직할시(1989년)	· 직할시→광역시 · 울산광역시(1997년)	·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도청 청사 이전	· 경기도청 (서울→수원, 1967년)	-	· 경남도청 (부산→창원, 1983년)	-	· 전남도청 (광주→무안, 2005년)	· 충청도청 (대전→충성, 2013년) · 경북도청 (대구→안동, 2016년)
시·군의 시·도 변경	· 금산군 (전북→충남, 1962년) · 울진군 (강원→경북, 1962년)	-	· 관산군, 송정시 (전남→광주, 1988년) · 대덕군 (충남→대전, 1989년)	· 달성군 (경북→대구, 1995년) · 강화군, 용인군 (경기→인천, 1995년)	-	· 연기군 (충남→세종, 2012년)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시기별 행정 구역 개편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의 공간적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60~197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이 공간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인구 증가로 인해 서울과 부산의 많은 구가 분리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시·군은 인구 증가로 인해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수도권 시·군의 증가가 계속되었고, 영남권에서도 시 지역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도농 분리에 의해 1990년 26개로 늘어났던 시·군·구의 수는 1995년 도농 통합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00년 234개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주변의 시·군이 직할시로 편입되었고,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고,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었다. 과거 광역시에 존재하던 도청은 2016년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도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지역별 시·군·구 수

행정 구역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전국	175	185	206	261	234	230	229
수도권	30	31	43	64	66	66	66
서울	9	9	17	22	25	25	25
경기	21	22	26	36	31	31	31
인천	-	-	-	6	10	10	10
충청권	27	29	30	39	33	33	32
충남	12	12	13	13	12	12	11
대전	15	17	17	21	16	16	15
세종	-	-	-	5	5	5	1
호남권	42	42	43	50	41	41	41
전북	17	16	16	19	14	14	14
전남	25	26	27	27	22	22	22
광주	-	-	-	4	5	5	5
영남권	53	61	67	82	72	70	70
경북	27	29	31	34	23	23	23
대구	-	-	-	7	8	8	8
경남	26	26	26	29	20	18	18
부산	6	6	10	12	16	16	16
울산	-	-	-	4	5	5	5
제주도	3	3	3	4	4	2	2

* 2010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의 서귀포시는 행정시이며 시·군·구로 분류함.

* 노란색은 신설·분리·통합 등으로 시·군·구 행정 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나타냄.